

남강유역 공렬토기의 전개 및 여타토기와의 관계

고민정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남강유역 공렬토기의 전개 및 여타토기와의 관계

고민정(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공렬토기 출토현황
- III. 청동기시대 조·전기유적 검토
 - 1. 미사리유형
 - 2. 가락동유형
 - 3. 역삼동·혼암리유형
- IV. 남강유역 공렬토기의 전개
- V. 맺음말

I. 머리말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연구는 1990년대 남강댐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면서 청동기시대 중기를 중심으로 유물 및 취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민정 2004; 황현진 2004; 쇼다신야 2007; 배덕환 2009; 최섯별 2013).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진주 대평리 유적과 진주 상촌리 유적, 사천 본촌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점열문토기 등의 양상을 통한 조기설정(이상길 1999; 안재호 2000, 2006) 및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과 편년연구가 이루어졌다(藤尾愼一郎 2002; 김재운 2003; 천선행 2005; 김병섭 2009; 고민정 2009). 하지만, 일부 자료만을 활용하거나 보고서 미간행으로 조기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00년대 남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진주 평거동 유적을 비롯하여 가호동 유적, 초전동 유적, 초장동 유적 등 대규모의 유적이 조사되면서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를 중심으로 좀더 세부적이



고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김병섭 2012; 정지선 2012; 정대봉 2015).

본고는 남강유역 공렬토기의 전개에 대한 것으로 주거지와 토기의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자료는 남강유역의 산청, 사천,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적 범위는 공렬토기의 발생 및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중기까지 해당된다. 남강유역의 조,전기 물질문화는 다양하고 다소 복잡한 양상이다.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남강유역의 공렬토기 출토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렬토기의 편년을 위해 조,전기 주거지 및 유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강유역 공렬토기문화¹⁾의 전개과정 및 여타토기와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공렬토기 출토현황

孔列文土器는 태토는 굵은 모래알이 섞인 점토로 되어 있고 색은 황갈색, 갈색, 흑갈색을 띠며 일반적인 기형은 구연부 바로 밑에 거의 같은 간격으로 직경 5mm 내외의 小孔을 뚫고 있으며 바닥이 구연부에 비해 좁고 동체 상부에 가서 약간 내경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나 대체로 직립구연을 가진 심발형토기이다(李白圭 1974).

공렬문의 명칭에 대해서 완전히 관통된 공렬문과 반관통의 돌류문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렬문의 투공방법에는 상당한 지역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李清圭 1988), 胎土와 器形, 製作手法 또한 동일하지만 토기 구연부 하부에 관통된 小孔列을 마련했느냐 아니면 관통되지 않게 해서 突起列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토기의 명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趙由典 1994: 120)²⁾이 있었다. 또한 大貫靜夫도 혼암리유형 토기의 계보론에 관한 연구에서 ‘특수한 수법에 의한 돌류와 단순한 원형자돌, 혹은 의도적인 투공을 같은 공렬이라는 명칭으로 일괄해서, 그 차이를 무시하여 기원, 계통론을 전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관통한 공렬문토기 가운데서도 제작당시에는 반관통의 ‘突瘤文’이었을 가능성과 관통한 공렬문의 경우 내면에서의 돌류를 의도한 것이 실수하여 관통된 것, 소성 후 2차적으로 관통한 것, 본래는 돌류였던 것이 소성 후에 剝落한 것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大貫靜夫 1996). 朴淳發은 반관통 돌류형 공렬토기가 관통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신석기 최말기 단계에 해당하는 내평 유적에서 반관통 돌류형 공렬문토기와 돌대문토기가 공반출토되고 있음을 그 예로 들었다(朴淳發 1999).

다음은 공렬문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고민정 2004). 공렬문에는 투공방향, 관통, 반관통, 구멍 직경, 구멍 간격, 구연단에서 구멍까지 거리 등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민정 2004). 松本直子は 한반도 남부지역의 공렬문에 대한 논의에서, 공렬문의 투공방향에는 시간적인 변화가 있고 내면에서의 반관통은 오랜 단계에 많고 이를 ‘proto type’으로 설정하였다. 경남지역에서는 관통과 반관통이 거의 유사하고, 제주도에서는 외면에서 반관통이 주체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구멍 직경의 차이는 지역의 천공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같은 천공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情報交流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우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松本直子 2000: 141-

1) 공렬토기문화는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으로 구성되는데, 가락동유형 및 송곡리유형과는 구분되면서 남한지역의 무문토기시대 전기 혹은 세형동검 시기 이전의 대표적인 토기문화로 규정하고 있다(이정규 1988: 88)

2) 趙由典은 반관통된 것이 초기인 관통은 從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반관통의 도돌띠 토기를 공렬문토기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 토기를 “도돌띠문장식 토기”로 가칭하고 따로 구분하고 있다.

153). 남강유역에서도 관통한 것과 반관통한 것이 수량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大貫靜夫(1996)의 논의대로 관통된 것 중에는 본래 돌류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후 관통된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기는 대부분 혼암리·역삼동유형 주거지에서 많이 출토되며, 송국리식 방형주거지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옥방5지구 C-3호 장방형주거지에서는 切狀突帶文토기와 함께 공렬문토기가 공반되었는데, 모두 밖에서 안으로 관통된 형태이다. 그 외 혼암리, 역삼동유형 주거지와 송국리식 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공렬문은 대부분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었다. 최근 김병섭은 남강유역 초기~전기 편년에서 공렬문과 돌류문을 구분하고 있는데, 두 토기의 출현과 소멸시점이 다름을 논의하였다(김병섭 2012: 213).

역삼동식, 혼암리식, 가락동식토기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초부터 이루어졌다. 역삼동식토기는 공렬토기와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회령 오동과 무산 호곡 유적 등의 동북한 지방의 토기가 남하하여 성립된 것이며, 가락동식토기는 무산 호곡 유적과 세죽리 유적 등의 동북지방 계통의 평저 및 찻꼭지 장식 등의 요소와 이중구연 및 단사선문이 시문되는 팽이형토기의 요소가 결합되어 현지화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李白圭 1974: 99). 한편, 가락동식토기군(유형)은 가락동유적의 토기군을 표식으로, 경기도 서해안과 한강유역에서 형성되었으며, 서북한 지방의 신흥동식토기(팽이형토기)의 변형으로 파악하기도 하고(李清圭 1988), 가락동유형의 성립배경을 압록강유역의 신탄리 제2문화층 단계의 이중구연토기가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 문화권을 우회하여 임진강 상류지역을 통하여 정착된 것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朴淳發 1999: 82).

혼암리식토기의 형성에 대해 이백규는 동북지방의 공렬토기와 적색마연토기가 서북지방의 팽이형토기와 한강유역에서 결합하여 혼암리식토기가 형성되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李白圭 1974). 이후 이청규는 혼암리유형을 공렬토기문화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한강유역의 역삼동유형의 집단이 각형토기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李清圭 1988), 안재호 등에 의해서 혼암리식토기의 한강유역 형성설은 오랜기간 정착되어 왔다(安在皓 1991). 이후, 혼암리유형에 가락동유형의 이중구연요소와 역삼동유형의 공렬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를 한강유역이 아닌 원산만일대의 동해안 북부지역에서 혼암리유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朴淳發 1999: 86).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가락동·역삼동·혼암리유형 설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및 계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혼암리식토기와 유형에 관하여 혼암리유형이 동일한 문화기반을 가진 동일집단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장석은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이 가락동유형 분포권 이외의 한반도 전역에서 중복적인 분포현상을 보인다는 점과 혼암리식 유물복합체간의 상이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삼동식토기가 가락동식토기보다 선행, 가락동유형 집단이 미송리형토기 사용집단에 의해 남한지방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일부가 先住한 역삼동유형 집단으로 흡수되면서 혼암리식토기가 형성되었다고 역설하였다(金壯錫 2001). 배진성은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석기조성이나 변화에서 큰 획기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고(裴眞晟 2000), 이형원은 혼암리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의 분포가 중복된 현상을 나타내고, 주거구조나 석기양상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역삼동유형과 혼암리유형을 하나의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결합시키기도 하였다(李亨源 2002).

공렬문의 출현시점에 대해서는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와 병행하는 조,전기로 보는 견해와 이보다는 늦은 전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공렬 속성은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이어지는 자생설과 중국 동북-북한에서 기원하여 남한내 변이가 발생한 외래기원설로 구분되는데, 공렬 속성을 요동-북한에서 구하는 견해는 남한 공렬토기



의 출현시점을 조-전기 이후로 보고 있다. 안재호·천선행(2004)은 신암리 I, 쌍타자Ⅲ의 원형첨부문이 간략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에도 요동지역 출토 자돌문과의 직접 관련성을 논의하였다(안재호 2010). 한편, 강인욱(2007)은 동북한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중국 연변 및 연해주 남부지역의자료와 비교하여 재해석하고 새로운 편년을 제시하였는데, 공렬문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돌류문은 지역적,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므로 한반도 공렬토기의 기원으로 상정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송만영(2013)은 공렬토기의 출현시점을 돌대문과 가락동식토기가 공존한 청동기시대 초기 이후로 보고 있다. 한편, 황재훈은 공렬토기의 기원에 대해 전기초에 외래기원(?)의 '古式공렬토기'가 남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조동리유형'의 혼암리식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의 공렬토기는 포함한 혼암리식토기 또한 전기 이후의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남한지역의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의 등장과 기원에 대해 가락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미사리식토기에 비해 지극히 단편적인 수준의 연구만이 이루어졌고, 문양론적 논리에 의한 형식방법과 교차편년에 치중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황재훈 2014: 47-48).

본고에서 공렬토기는 역삼동식과 혼암리식토기를 포괄한 것으로, 남강유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중기까지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송국리단계에서 모두 출토된다. 유형의 구분은 주거지 평면형태와 내부의 노지시설, 초석열(주혈열)을 주축성으로 삼고 출토된 토기 문양을 기반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남강유역 조,전기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김병섭(2012: 209-212)은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유사이중구연토기(혼암리·가락동식토기), 돌류문과 구순각목(역삼동식토기?) 중심 주거지로 구분하여 공반유물을 파악하였는데, 토기형식으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남한 전체에 적용하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남강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공렬문계토기는 미사리유형에서 확인된다. 대평리 옥방5지구 C-3호 주거지에서는 각목과 무각목의 절상돌대문토기와 능상파수토기와 함께 공렬문토기 3점이 출토되었다. 이중 1점은 공렬문 위에 단사선이 시문되어 있고, 3점 모두 공렬문은 밖에서 안으로 투공한 형태이다. 평거4-1지구 5호 주거지에서는 공렬+구순각목문토기 2점이 출토되었는데, 1점은 이중구연으로 되어 있다. 이 토기는 이중구연 폭이 1.4cm 정도이며, 이중구연 아래쪽이 동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두께는 얇은 편이다. 공렬문은 밖에서 안으로 투공하였고 구순각목은 사방향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나머지 1점도 밖에서 안으로 투공하였다. 미사리유형에서 출토된 토기는 단순 공렬과 공렬+구순각목토기로 공렬문 위에 단사선이 시문된 것도 있지만 이는 혼암리식토기와는 다른 것이며 모두 역삼동식토기의 범주로 생각된다.

가락동유형에서도 모두 7기의 주거지에서 공렬문계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평거3-1지구 5호 주거지 출토 1점만 구연외단각목+공렬문토기이며, 나머지는 모두 단순 공렬문이다. 평거 3-2지구 1호 출토 공렬문토기는 심발형토기로 기고 50.7cm의 대형토기로 1/2 이상 남아있다. 이 토기는 안에서 밖으로 반투공하려고 했으나 투공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평거3-1지구 5호 출토공렬문토기는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될 수 있으며, 평거3-2지구 1호에서도 능상파수와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³⁾가 공반되어 조기후반에 편년되는 것으로 보인다. 초전동 42호 출토 공렬문토기는 밖에서 안으로 관통한 형태로 가락동식이중구연에 단사선문, 거치문, 구순각

3)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는 기존의 상촌리식, 가락동식과는 구분되는 토기형식으로 이중구연토기는 최근 배진성(2013)과 정대봉(2015)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표 1> 남강유역 공렬문제토기 출토유적

	주거지 특징	공렬문제토기 문양	기타문양	출토유적
미사리 유형	미사리식주거지 중대형 장방형, 석상위석식노, 초석열(주혈열)	공렬문 공렬+단사선문?	돌대문, 절상돌대문	옥방5지구 C-3호 평거4-1지구 5호
가락동 유형	둔산식주거지 중대형 장방형, 위석식노, 초석열(주혈열)	공렬문	돌대문, 절상돌대문 평거동식이중구연 상촌리식이중구연 구순외단각목문 구순각목문 가락동식이중구연 (*복합문)	평거3-1지구 5호, 평거3-2지구 1호, 평거4-2 지구 3호, 옥방4지구 34호, 초전동42호, 초 전동43호, 평거4-2지구 5호
역삼동- 흔암리 유형	관산리식주거지 흔암리식주거지 중대형 세장방형, 장방형, 무시설식노	공렬문 공렬+구순각목문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 선문	가락동식이중구연 (*복합문) 구순외단각목문 구순각목문 이중구연마연 횡침선문마연	사월리11호, 본촌리 나6호, 옥방5지구 C-24 호, 옥방4지구 10호, 초전동55호, 어은2지구 2호, 사월리 3호, 옥방4지구 8호, 귀곡동 대 촌7호, 본촌리 나8호, 옥방4지구 1호, 옥방1 지구 1호, 옥방2지구20호, 옥방4지구 11호, 옥방4지구 21호, 옥방5지구 C-1호, 하촌리 IA-24호
	소형 (장)방형, 무시설식노	공렬문, 공렬+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 선문	평거4-2지구 9~12호, 초전동44호, 귀곡동 대촌8호, 옥방1지구 2호, 하촌리 IB-16호, 하 촌리 IB-25호, 귀곡동 대촌2호, 초전동 58호
송국리 유형	소형 (장)방형, 중앙수혈, 양주혈	공렬문, 공렬+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산청 하촌리, 옥방5지구 A-22호, 어은2지구 50호 외 다수

목문 등이 복합시문된 토기와 양단자른 석도, 횡단면 타원형 합인석부가 공반되어 전기 전반의 늦은 시기에 편년할 수 있다. 가락동유형에서도 모두 단순 공렬과 공렬+구순각목만 출토되어 역삼동식토기의 범주에 속한다.

이상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 출토 공렬토기의 속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멍크기는 0.2~0.5cm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데 대개 0.3cm 범위 내에 있다. 구연단에서 거리도 비교적 0.5~1.0cm 범위 내에 시문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구멍간격에 있어서는 다소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옥방5지구 C-3호 주거지와 평거3-1지구 5호 주거지 출토 공렬문제토기는 구연단에서 거리가 2.5~4.4cm 까지 떨어져 있다. 구연단에서 공렬문까지의 거리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는 없으며, 사실 대개는 일정한 높이에 공렬문을 시문하지만, 초전동 42호 주거지와 평거4-2지구 5호 주거지 출토 토기와 같이 일부는 정연하지 않게 시문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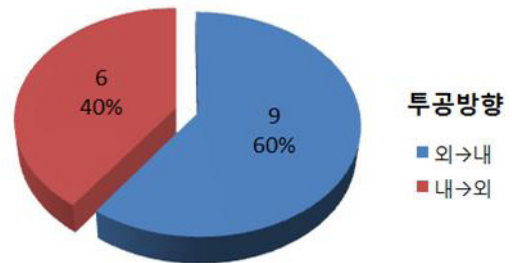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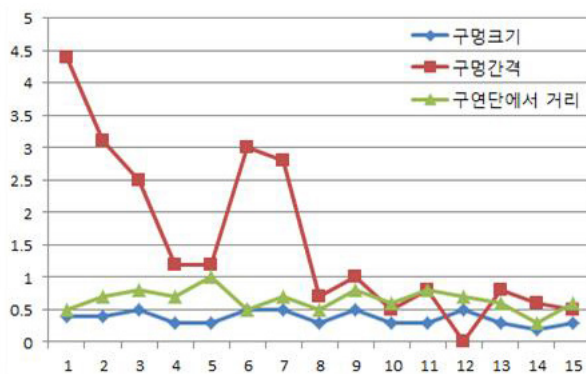
역삼동-흔암리유형에서는 공렬문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며 기종도 대형의 심발형토기에서부터 천발형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에 시문되며, 호형토기에도 간혹 확인된다. 타문양과의 결합에 있어서는 구순각목문과는 호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등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이중구연, 단사선문과 결합된 소위 흔암리식토기는 중형의 심발형토기도 있지만 구경이 넓고 큰 대형토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후 송국리단계에서는 공렬과 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주로 편의 형태로 출토되어 그 공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완형의 형태로 출토된 경우도 많이 확인되고 주로 심발형토기, 천발, 호형토기에 시문되어 있으며, 이전 시기와 같이 좀더 정형화된 형태로 시문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 공반 공렬문제토기

(단위: cm)

유구명		결합문양	구멍크기	구멍간격	구연단에서 거리	투공방향
옥방5지구 C-3호	1		0.4	4.4	0.5	외→내
	2		0.4	3.1	0.7	외→내
	3	단사선	0.5	2.5	0.8	외→내
평거4-1지구 5호	1	이중구연+구순각목	0.3	1.2	0.5~1.0	외→내
	2	구순각목	0.3	1.2	1.0	외→내
평거3-1지구 5호	1		0.5	3.0	0.5	내→외(돌류)
	2	구연외단각목	0.5	2.5~3.0	0.5~1.0	내→외
평거3-2지구 1호			0.3	0.7	0.5	내→외
옥방4지구 34호			0.5	1.0	0.7~1.0	내→외
평거4-2지구 3호			0.3	0.5	0.5~0.7	외→내
초전동 42호			0.3	0.8	0.7~1.0	외→내
초전동 43호			0.5		0.7	외→내
평거4-2지구 5호	1		0.3	0.8	0.6	내→외
	2		0.2	0.6	0.3	내→외
	3		0.3	0.5	0.6	외→내



<도면 1>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 공반 공렬문제토기 속성

Ⅲ. 청동기시대 조·전기유적 검토

청동기시대 남강유역에는 초기에서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취락의 입지가 대부분 하천 충적지의 평지에 있지만 산청 사월리 유적과 같이 구릉에서도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초기에는 진주 대평리 유적 어은지역과 옥방5지구의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은 자연제방 상면과 가장자리에 주거지가 위치하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서 10여동이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평거동 유적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열식의 線狀구조 형태이다(安在晔 2006: 101). 특히, 평거동취락에서는 선상구조로 분포하면서 개별 주거지 2~3동이 모여서

한 단위의 주거군을 이루고 각각 4~5단위의 주거군을 이루고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는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진주박물관 조사), 옥방2지구, 옥방8지구, 어은2지구에서는 주거지가 1동 혹은 2동이 단독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 중에는 2~3동이 소군을 이루거나 단독으로 1동만 존재하는 등 소규모로 확인되는 취락을 點狀취락이라 한다. 또한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주거(+저장)공간, 분묘공간, 의례공간, 생산공간으로 구분된 넓은 범위의 취락이 형성되는데, 취락의 공간구조가 다양화되고 기능이 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형원 2002, 2009).

이하에서는 남강유역 조,전기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분류하여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남강유역 조,전기 주거지 분류>

- 미사리식·어은식: I 식
초석열(가), 주혈열(나), 석상위석식노(a), 무시설식노(b),
* I 가a식: 평면 장방형, 석상위석식노, 초석열 - 어은식
- 둔산식: II 식
초석열(가), 주혈열(나), 위석식노(a), 무시설식노(b), 석상위석식노+무시설식노(c)
- 관산리식·혼암리식: III 식
세장방형(가), 장방형(나), 방형(다), 노지유(a), 노지무(b)

1. 미사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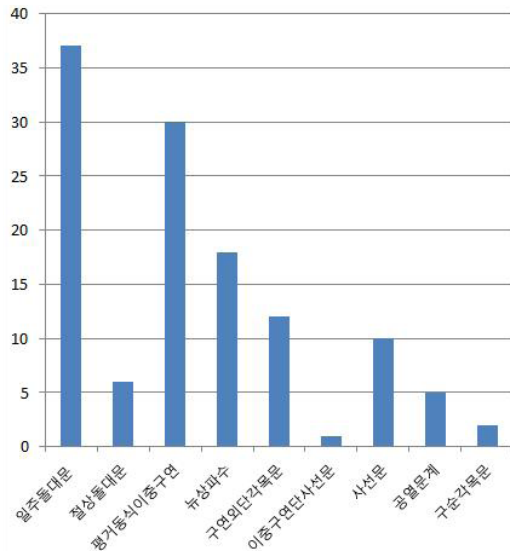
미사리유형은 평면형태 중대형의 장방형주거지, 석상위석식노지로 구성된 미사리식 주거지가 기본이며, 초석열 혹은 주혈열이 추가된 남강유역의 주거지를 ‘어은식’(안재호 2006)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남강유역의 주거지는 미사리식주거지와 어은식주거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확인된다. 이러한 미사리식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토기문양요소는 돌대문, 절상돌대문, 누상파수, 평거동식이중구연,⁴⁾ 구순외단각목문, 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 공렬문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사리식주거지에서 개별 토기문양요소의 출토량은 돌대문토기의 수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공렬문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도 출토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렬문은 단순 공렬문과 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어 이른 시기부터 공렬문과 구순각목문이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하에서부터 상촌리식이중구연, 가락동식이중구연과 구분하기 위해 ‘평거동식이중구연’(정대봉 2015)으로 지칭한다.



<표 3> 미사리식유형 토기문양

	출토수량
일주돌대문	37
절상돌대문	6
평거동식이중구연	30
뉴상파수	18
구연외단각목문	12
이중구연단사선문	1
사선문	10
공렬문	5
구순각목문	2



拙稿(2009, 2011) 이후, 진주 평거동 유적을 포함한 남강유역의 조,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많이 조사되었고 또한 이에 대한 새로운 편년 및 지역성 등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필자의 논고에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돌대문토기의 형식분류에서 구순외단각목문토기를 포함하여 모두 5형식으로 세분하였는데, 이 중 3형식은 돌대문과 이중구연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형식분류에서 제외하고 퇴화돌대문의 기존 4형식을 3형식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구순외단각목문토기(김현식 2008; 안재호 2009)는 돌대문 형식과 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구연상단부에 시문하는 일반적인 구순각목문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구순외단각목문토기는 초기에서 전기전반에 제한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금강유역에서도 절상돌대문토기와 함께 소수의 주거지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공민규 2012: 31), 구순외단각목문토기도 단계구분에 있어 확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중구연토기의 분류 및 편년, 계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중구연토기에 대해서는 가락동유형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남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조,전기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는 이중구연의 형태 및 제작기법에 따라서 단순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사선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 가락동식토기로 구분된다. 이중구연토기의 계통에 대해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거나(김병섭 2003; 宮本一夫 2004: 59; 안재호·천선행 2004: 71·96), 말기 즐문토기와는 무관하며 요동

반도-서북지역이나 팽이형토기문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상촌리 이중구연토기도 올리식토기와는 무관하며 요동지역 이중구연토기의 영향으로 보았다(하인수 2006).

이에 대해 배진성(2007)은 요동반도-압록강하류역의 팽이형토기문화와 남부 초기무문토기는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미사리 유적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요동계의 이중구연단사선



<도면 2>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평거3-1지구 3호 주거지)

문토기가 출토되고, 대평리 유적에서는 재지계의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은 외래계 요소와 재지계 즐문토기의 요소를 계승한 결과로 보았다. 한편, 이중구연을 돌대문과 같이 조기의 요소로 보면서 모두 서북한지역과 관련되거나(김현식 2008) 상촌리 D지구 B-10호 출토 각목돌대문토기에 거치문이 결합되고, 진주 가호동 6호에서 거치문이 독립된 문양요소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요동-압록강유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김병섭 2009: 12).

이후 배진성은 가락동식토기의 초현과 계통에 대해 다시 논의하면서 이중구연의 폭이 넓고 동체로부터의 융기가 약한 둔산2호, 용정도, 사양리, 수당리 1호 출토토기를 ‘가락동식토기’로, 충남 연기 대평리 유적 출토 폭이 좁은 이중구연을 ‘요동계이중구연(각목문토기)’으로 구분하였다(배진성 2013). 정대봉은 진주 평거3-1지구 출토 이중구연의 제작기법을 상세히 검토하여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라고 명명하고, 초기 전반 외래계 古式이중구연토기가 서북지역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남하하면서 변형된 고유의 형태로 보고 중심연대는 초기후반에 편년하였다(정대봉 2015). 필자는 줄고(2009)에서 가락동식토기와 구분 및 돌대문토기와와의 공반관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탓으로 전기전반 이후로 편년하였던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이 토기는 단기문양으로 김병섭(2012), 정대봉(2012)의 논의와 같이 초기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황재훈은 중서부지역의 이중구연토기에 대해 형태의 다양성을 무조건적으로 시간 변이로만 간주할 수는 없으며, 공간적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공간별로 14C 연대의 상한차를 두기 어렵고, 동일 유구내 서로 다른 이중구연형식이 공반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반드시 시간 변이보다는 동일 시점의 지역차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황재훈 2014: 44).

이상 미사리유형의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살펴본 결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옥방5지구와 어은1지구 107호주거지가 포함된다. 석상위석식노지가 있는 소형의 방형·장방형주거지가 해당된다. 남강유역에 각목돌대문토기문화가 형성되는 단계로 주거지 내에서 각목돌대문토기 1형과 즐문토기가 공반된다. 어은 1지구에서 각목돌대문토기 주거지 주변에 신석기말기의 야외노지가 함께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공존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민정 2009). 2단계는 상촌리 D지구 B-2호와 옥방5지구 D-1호에서 돌대문 1형과 2형이 출토되고, 평거3-1지구를 중심으로 돌대문 1·2형과 절상돌대문, 뉴상파수,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주를 이룬다.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는 단순히중구연과 사선문이 시문된 토기로 구분되며, 단순히중구연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거3-1지구 4호 주거지에서는 뇌문토기도 공반된다. 석기는 편평편인석부, 장방형석도, 어형석도, 삼각만입석촉, 환형석기, 부리형석기, 석제방추차 등이 출토된다.

3단계는 석상위석식노지만 설치된 미사리식주거지와 석상위석식노지와 초석열 혹은 주혈열이 확인되는 어은식주거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돌대문토기 2·3형,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 구순외단각목문토기,⁵⁾ 구순각목문토기, 공렬문토기가 출토되는데,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는 어은식주거지에서만 나타난다. 석기는 1단계의 석기상에 유경식석촉과 합인석부가 추가되었다. 유경식석촉과 합인석부는 서울, 경기지역 2단계와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2단계에 보이는 것으로 전기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한편 평거4-1지구 유적에서는 모두 어은식주거지만 확인되어 평거3지구 유적과 다른 양상이다. 또한 토기상에서도 돌대문토기는 2형과 3형, 뉴상파수, 구순외단각목문토기 등이 확인되

5) 구순외단각목문(공민규 분류 구순각목b)에 대해서 공민규는 수당리(C) 6호 출토 토기를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 1단계에 편년하고 있다. 구순외단각목문과 절상돌대문을 같이 1~2단계로 편년하고 있는데, 서로 병행하거나 구순외단각목문이 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출토유구의 수가 적고 제한적이므로 거의 동일한 단계로 편년하였다(공민규 2013: 31).



나,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평거4-1지구 5호 주거지에서는 공렬+구순각목문 토기가 2점 출토되었다.

다음은 본촌리 나-3호 주거지의 편년문제이다. 나-3호 주거지의 연대는 조기, 전기전반, 전기후반으로 보는 견해로 크게 차이가 있다. 먼저 본촌리 나-3호 출토 각목돌대문토기는 남강유역에서 가장 늦은 형태이며 공반하는 혼암리식토기도 이중구연의 경계가 애매하며, 사선문은 구연과 동체부에 걸쳐서 시문된 남부지역권 사선문 분류 IV기(안재호·천선행 분류)이며, 남강유역 전기 Ⅲ기로 편년하고 있다(천선행 2005: 72). 이에 대해 김병섭은 본촌리 나-3호 주거지 출토유물 인용사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혼암리식토기는 내부 매몰토에 혼입된 유물로 추정되므로, 이 주거지에 소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각목돌대문토기 출토 유적 중에서 혼암리식토기가 공반된 예는 본촌리 유적 하나에 불과한 매우 희소한 예이며, 보고서도 간행되지 않은 사례가 주 근거가 되어 일반적 편년기준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촌리 나-3호 주거지 연대를 전기 후반이 아닌 초기까지 올려볼 수도 있고, 돌대문토기의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와 횡대구획문의 출현시기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김병섭 2009: 16-17), 최근 연구에서는 초기 전반(?)까지 올려보기도 한다(김병섭 2012: 218). 필자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데, 일단 상부매몰토에서 출토된 혼암리식토기는 제외하고라도 전반적으로 나-3호 주거지의 유물 출토양상을 보면, 초기와는 달리 호형토기와 마연토기 등 토기 기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초기의 요소인 돌대문토기, 장방형석도, 방형의 대팻날석기 등으로 볼 때에는 초기의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송영진의 마연토기 분류 및 편년을 통해서도 본촌리 나3호 주거지 출토 평저장경호의 연대를 전기전반(송영진 2016)에 두고 있다.

<표 4>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주거지 형식	일주돌대문			절상 돌대	뉴상 파수	평거동식 이중구연		이중구연 단사선	사 선 문	구순 외단 각목	구순 각목	공렬 구순 각목	공렬문	석기류	단계
		1형	2형	3형			단순	선문								
옥방5지구 D-2호	I a식	2													석제방추차	1
어은1지구 107호	?	●	●													
상촌리D지구 B-2호	I a1식	1														2
어은1지구 118호	I a1식	●											●			
옥방5지구 D-1호	I 나b1?		2												편평편인석부	
평거3-1지구 4호	I 나a1식	2	1			2	16	1		1					장방형석도	
옥방5지구 C-3호	I 가a1식	1?			3	1								3*		
평거3-1지구 12호	I 가a2식		1			6									장방형석도 증형 석도 석제방추차	

	주거지 형식	일주돌대문			절상 돌대	뉴상 파수	평거동식 이중구연		이중구연 단사선	사 선 문	구순 외단 각목	구순 각목	공렬 구순 각목	공렬문	석기류	단계
		1형	2형	3형			단순	선문								
평거3-2지구 2호	I 가a1식			2?		1		2							어형석도 삼각만입촉 편인석부 석제방추차	2
평거3-1지구 6호	I 가a1식						1	4		1					장방형석도 부리형석기 환형석기	
평거4-1지구 5호	I a1식		3	1		1			1*		2		2*		석제방추차	3
평거4-1지구 1호	I ?식		1	1							2				양단석도, 석제방 추차유경식석촉 방형석부	
평거4-1지구 2호	I a12식		1									2			석제방추차	
평거4-1지구 3호	I a1식					2					7				장방형석도 어형석도 유경식석촉 환형석기	
평거3-1지구 11호	I 가b1식					1		1							장방형석도 합인석부 석제방추차	
평거3-1지구 7호	I 가a1식	4		3 (1?)		1	4	3	2	8	1				장방형석도 어형석도 합인석부 편인석부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석제방추차	
본촌리 나3호	I 가?식		5	6?	2										어형석도 양단석도 편인석부 합인석부 유경식석촉 환형석기	

2. 가락동유형

가락동유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첫째, 장방형주거지에 위석식노지를 비롯한 초석, 저장공 등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둔산식주거지), 둘째, 토기상에서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으로 대표되는 가락동식토기의 존재, 셋째, 이단병식 또는 유혈구 마제석검을 비롯한 삼각형석촉, 이단경촉, 양인석부, 반월형석도 등이 공반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양한 속성들도 나타난다(이형원 2002: 22). 남강유역 가락동유형의 둔산식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주거지에 위석식노지와 초석열 혹은 주혈열을 갖춘 주거지가 해당되며, 안재호의 둔산식과 영등동식(안재호 2006)을 포함하고 공민규의 분류안에 따라 둔산식으로 총칭하였다(공민규 2013). 가락동유형은 모두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2단계와 3단계는 석기조성차이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평거3-1지구 3호, 2호, 5호, 10호 주거지가 해당되며 돌대문토기와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된다. 석기는 미사리유형의 초기와 유사한 양상이다. 2단계는 평거3-2지구와 옥방4지구의 장방형주거지와 소형방형주거지가 해당된다. 유물은 평거동식이중구연과 뉴상파수가 주로 출토되며 돌대문과 이중구연거치문점열토기(옥방4지구 31호), 구순각목문, 공렬문토기가 공반된다. 석기는 1단계와 유사하다. 평거3-2지구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이중구연의 폭이 짧고 도톰하면서 단사선문은 이중구연 바로 밑에 짧게 시문되고 있어 평거동식이중구연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토기는 인천 동양동 유적 출토토기(강병학 2012: 69-70)과 유사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평거3-2지구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공렬문토기는 높이 50cm 정도의 대형토기로 공렬문은 내→외로 관통하였다. 특히 토기 바닥에 활엽수의 잎맥흔이 남아있는데 이처럼 바닥에 잎맥흔은 돌대문토기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주거지에서는 호형토기, 심발형토기, 천발, 완 등이 출토되어 토기 기종이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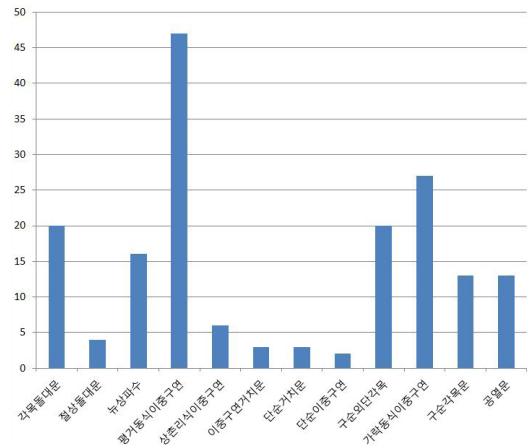
3단계는 가호동 1호와 2호가 해당된다. 가호동 1호 주거지는 평거동식이중구연(거치문)토기와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 구순외단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된다. 심발형토기 외에 호형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천발 등 기종구성이 다양해진다. 홀구연에 거치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가 2점 출토되었는데, 이 중 한점은 내면사이부토기이며, 나머지 한점은 무문양의 심발형토기이다.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어 초기 후반에 편년도 가능하지만 합인석부와 유경식석촉 등으로 볼 때, 전기 초에 편년한다. 가호동 2호 주거지도 돌대문2형이 출토되어 초기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석기 상에서 1호 주거지와 유사하다.

4단계는 평거4-2지구와 초전동 유적이 해당되는데 평거동식이중구연이 사라지면서 가락동식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된다.⁶⁾ 평거4-2지구 3호에서는 뉴상파수, 평거동식이중구연과 함께 가락동식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된다. 이외 단순 이중구연토기 2점과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 3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1점은 이중구연이 두툼하고 짧고, 2점은 가락동식토기와 같이 이중구연이 2~3cm 정도로 길고 편평하게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이외 거치문+구순각목문토기는 이중구연부가 평거동식이중구연보다는 편평하고 길게 되어 있다. 석기는 어형석도, 유공삼각만입석촉, 유경식석촉, 편평석부, 석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이중구연+구순각목문 토기 중에는 구순외단각목문이 시문된 것도 확인된다. 평거4-2지구 7호 주거지에서도 심발, 마연토기 장경호, 천발 등이 출토되어 기종이 다양해진다. 평거4-2지구 8호 주거지에서도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이 시문된 가락동식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구순외단각목이 시문되었다.

6) 최근 금강유역의 이중구연토기의 세부편년에서 폭이 좁은(미사리계)이중구연과 폭이 넓은(가락동계) 이중구연이 이른 단계부터 공존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공민규 2013), 남강유역에서는 전기초 혹은 전기전반에 이르러서야 가락동계(?)이중구연토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가락동유형 토기문양(수량)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뉴상파수
20	4	16
평가동식이중구연	상촌리식이중구연	이중구연거치문
47	6	3
단순거치문	단순이중구연	구순외단각목
3	2	20
가락동식이중구연	구순각목문	공렬문
27	13	3



이상 가락동유형에 속하는 주거지 가운데서 위석식노지와 초석열이 보이지 않는 장방형주거지도 포함시켰는데, 이를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주거지에 대해서 非가락동계문화로 이해(공민규 2013)하기도 하지만, 유물 출토정황 및 주변 주거지 분포양상으로 볼 때, 가락동유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이형원(2007)과 송만영(2013)에 의해서도 둔산식주거지를 가락동유형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토기상에서도 공렬토기나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는 것을 역삼동·혼암리유형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간의 문화 접촉 등으로 보아야 할 지 검토가 필요하다.

3. 역삼동·혼암리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주거지는 관산리식과 혼암리식주거지가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으로 구분되고 무시설식노지를 기본으로 한다. 역삼동·혼암리유형은 모두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전기전반에 해당되고 3단계와 4단계는 전기후반에 해당된다.

1단계는 세장방형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 2~3기가 설치되어 있다. 혼암리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가 주류인데, 역삼동식토기가 더 많이 출토된다. 이외에 뉴상파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마연토기(대평리식이중구연토기) 등이 공반된다. 옥방 5지구 C-2호 주거지는 역삼동식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천발과 심발형에 공렬문이 시문되어 있다. 석기는 장주형석도, 합인석부, 유경식석촉 등이 확인된다. 옥방 5지구 C-4호 주거지에서는 혼암리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를 비롯한 심발형토기, 호형토기, 천발, 이중구연마연토기, 채문토기, 적색마연토기 등 토기의 기종은 다양하며, 석기는 주형석도, 양단자른 어형석도, 합인석부, 편인석부, 유경식석촉, 화형석기, 석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표 6> 남강유역 가락동유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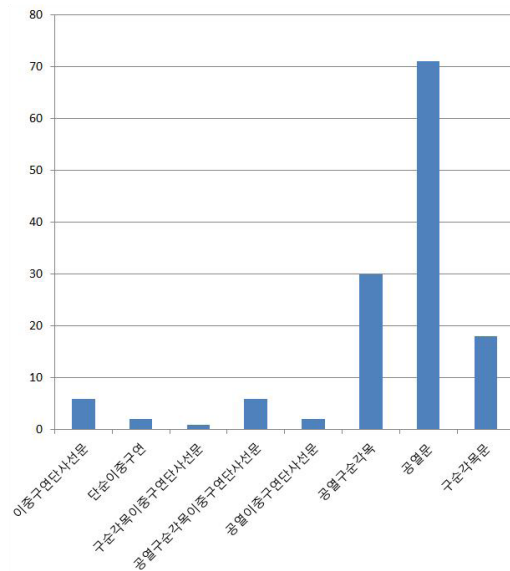
	주거지 형식	돌대문			절상돌대	누상파수	평거동식 이중구연			거치문	상촌리식 이중 구연	이중 구연 거치문	단순이중 구연	구순외단 각목	구순이중 구연	이중 구연 단사선	구순 각목 이중 구연 단사선	구순각목 단사선	가래편	석기류	단계
		1형	2형	3형			단 순	사 선 문	거 치 문												
평거3-1지구 3호	Ⅱ가a1식	1	3		2	2	11	1						1						양단석도, 출형석도 삼각만 입촉, 부리형석기 환형석기	1단계
평거3-1지구 10호	Ⅱ나식?		2	2																	
평거3-1지구 2호	Ⅱ가a1식		1		2		5													유경식석촉편, 부리형석기	
평거3-1지구 5호	Ⅱ가a1식		3?				6	4	11										2*	양단석도, 장방형석도 편인석부, 석제방추차	
평거3-2지구 1호	Ⅱ나b2식					8	1	1											1	유혈구석검편, 양단석도 어형석도, 편인석부 석제방 추차, 석영제전공구	2단계
평거3-2지구 4호	Ⅱ다a1식		1			1												1		양단석도, 출형석도 어형 석도, 편인석부, 환형석기, 석제방추차	
평거3-2지구 3호	Ⅱ다b1식															2*				석제방추차	
옥방4지구 1호	Ⅱ다a1식					1						1 점열									
옥방4지구 34호	Ⅱ다a1식																		1	어형석도미완성품	3단계
가호동1호	Ⅱ가c2식								2	2	6			5		1*		3		양단석도, 어형석도, 편인석 부 삼각만입촉, 합인석부	
가호동2호	Ⅱ가b1식		7			1	1?		1?					1				1		삼각만입촉, 유경식석촉 합인석부, 석제방추차	
평거4-2지구 3호	Ⅱ가b3식					3		4				1*	2	5	2	3*	3	3	3	어형석도, 유경식석촉 편인석부, 석제방추차	4단계
초전동 42호	Ⅱ나b2식 + Ⅱa1식											1?		4		4 (2?)	1	2 (1?)		양단석도, 어형석도 유혈구석검편, 합인석부 편인석부, 환형석기	
평거4-2지구 2호	Ⅱ나b1식													2						어형석도? 편인석부	
평거4-2지구 7호	Ⅱ나b2식													2						장어형석도, 주형석도 편인석부	
초전동 43호	Ⅱ나b2식														2	2		2		석검편, 편인석부?	
평거4-2지구 5호	Ⅱ나b1식															1	2		1	어형석도	
평거4-2지구 8호	Ⅱ나식																2				
평거4-2지구 6호	Ⅱ나b2식																	1 거치			
평거4-2지구 9호~13호	Ⅱb1식																1	5	1		

2단계는 평면 장방형, 방형주거지에 퇴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되고, 혼암리식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혼암리식토기는 옥방4지구 1호에서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1점 확인되었다. 본촌리 나8호에서는 공렬, 공렬+구순각목, 구순각목, 단순이중구연가 출토되고 적색마연토기도 다수 공반되었다. 이전 시기의 본촌리 나3호와 나6호에서 보였던 경전간횡침선문토기가 출토되는데 송영진은 평저호의 분류를 통해 전기후반에 편년하고 있다(송영진 2016: 130-132). 옥방4지구 8호 주거지에서는 퇴화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되고, 귀곡동대촌 7호와 8호, 초전동 44호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 편이 확인되는데 구연단 끝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가락동식토기인지 혼암리식토기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3단계는 평면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주거지가 모두 확인된다. 토기는 역삼동식토기(공렬+구순각목과 공렬)가 주류이며, 구순각목문과 이중구연마연토기(대평리식이중구연토기), 횡침선문토기도 출토된다. 석기는 삼각만입촉, 유경식석촉, 편평석부, 부리형석기 등이 공반된다. 옥방1지구 2호, 하촌리 IB-25호 주거지 등 평면 방형의 주거지가 청동기시대 중기의 하촌리형주거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역삼동 혼암리유형 토기문양

문 양	수 량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1
이중구연단사선문	6
단순이중구연	1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6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	2
공렬구순각목	30
공렬문	71
구순각목문	18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이행기에 있어 김병섭은 주거지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여 하촌리형주거지-하촌리기를 설정하였다(김병섭 2011). 하촌리 유적을 포함하여 남강유역의 여러 유적에서 전기의 노지를 가진 주거지에서 중기의 중앙수혈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이 확인되었는데, 하촌리형주거지는 필자의 분류 II A2형·II A3형 주거지(고민정 2004)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 주거지에서는 주로 공렬문, 공렬+구순각목문 토기가 이중구연마연토기, 부리형석기 등이 공반된다. 산청 하촌리 III-7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노지와 타원형수혈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전기후반-중기로 이행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김병섭은 이 주거지를 전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



다. 필자는 유물 조합상에서 오히려 무문양의 심발형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일단경식석촉, 천하석제 옥류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중기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표 8> 남강유역 역삼동-흔암리유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주거지 형식	뉴상 파수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문	이중 구연 단사 선문	단순 이중 구연	공렬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 구순 각목	공렬 문	구순 각목문	이중 구연 마연 토기	횡침 선문 마연 토기	석기류	단 계
사월리 11호	Ⅲ 나식?			1		1		4	7	2			어형석도, 주형석도, 합인석부, 이단경촉, 이단병식석검, 석제방추차	1
사천본촌리 나6호	Ⅲ 나식?	1				2		2		3			어형석도, 합인석부	
옥방5지구 C-2호	Ⅲ 가a3식				1?				2				어형석도3, 합인석부, 유경식석촉	
옥방5지구 C-4호	Ⅲ 가식?					1			3		2		환형석기, 어형석도, 양단석도, 합인석부, 편평석부, 이단경촉, 일단경촉, 석제방추차	
옥방4지구 10호	Ⅲ 나a2?						1	2	5					
초전동 55호	Ⅲ 가a3식							1					어형석도, 이단경촉	
어은2지구 2호	Ⅲ 나a1?					1							이단경식석촉, 어형석 도, 합인석부, 편평석부, 유혈구석검	
사월리 3호	Ⅲ 나a1?			1		2				1			삼각만입석촉	2
사천본촌리 나8호	Ⅲ 나a2식				1			1	6	1			삼각만입촉, 편인석부	
옥방4지구 8호	Ⅲ 나a2?			1* 퇴화				2	9		2*		편평석부, 이단경촉 유경식석검	
귀곡동 대촌 7호	Ⅲ 나식?			1?				1	5	1				
옥방4지구 1호	Ⅲ 나a1식						1	2	4				이단경촉, 편평석부, 주형석도?	
귀곡동 대촌 8호	Ⅲ 다식?			1?				2	2					
초전동 44호	Ⅲ 다a1식			1?						1				

	주거지 형식	뉴상 파수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문	이중 구연 단사 선문	단순 이중 구연	공렬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 구순 각목	공 렬 문	구순 각목문	이중 구연 마연 토기	횡침 선문 마연 토기	석기류	단 계
옥방1지구 1호	Ⅲ 가a1식							7	8	1	4	3?	유경식석촉 부리형석기, 석촉	3
옥방2지구 20호	Ⅲ 나a1식							1	3				석검편, 환형석기 삼각만입촉, 부리형석기	
옥방4지구 11호	Ⅲ 나a1식							2	5				편평석부, 합인석부 석제방추차	
옥방4지구 21호	Ⅲ 나a1식							1			2			
옥방5지구 C-1호	Ⅲ 나a1식								6				편평석부 부리형석기	
산청하촌리 IA-24호	Ⅲ 나식?								1				편평석부	
옥방1지구 2호	Ⅲ 다a1식							2	1					
산청하촌리 IB-16호	Ⅲ 다식?								1		1		석촉편? 부리형석기	
산청하촌리 IB-25호	Ⅲ 다a1식								1	1	1		주형석도?	
귀곡동대촌 2호	Ⅲ 다식?								1					
초전동 58호	Ⅲ 다a1식									2				

IV. 남강유역 공렬토기의 전개

공렬토기의 청동기시대 초기 단계 존재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청규에 의해 먼저 논의되었는데, 옥석리 1호주거지와 혼암리 12호 및 8호 주거지를 예로 들어 한강 중하류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초기 단계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상존한 것으로 보았다(이청규 1988: 83).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조기의 편년에 있어서 돌대문토기 단독기 설정(안재호 2006; 천선행 2009)에 대한 많은 이견이 제시되었다. 김장석은 각목돌대문토기의 조기설정과 함께 돌대문토기의 상한과 역삼동식토기의 상한에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논의하면서(김장석 2008: 113), 각 토기형식이 어디에 먼저 정착하였는가에 따라 특정 지점에서의 선후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남한 전역을 아우르는 조기를 설정할 수준의 선후관계는 아니라고 하였다(김장석 2008: 111). 또한 그는 북한지역에서도 압록강, 청천강 일대의 여러 주거유적은 단일한 물질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점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압록강 중상류일대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공귀리식토기가, 청천강 일대에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대동강일대에서는 각형토기가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김장석 2008: 108).

이와 더불어 가락동식이중구연토기와 구분되는 소위 요동계이중구연토기(혹은 평저동식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 등도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양상으로 이해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현식 2008; 김병섭



2009-2012; 배진성 2009-2012; 정대봉 2015). 줄고(2009)에서 필자는 김장석(2008)의 논의대로 지역에 따라 각목돌대 문토기와 역삼동식·혼암리식·가락동식토기의 형성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들 간에 시간차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각목돌대문토기만을 따로 떼어내어 초기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물질자료에서 이전시기와 구분되고 또한 가락동식·혼암리식·역삼동식토기 문화와는 차별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각목돌대문토기 문화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이해한 바 있다. 남강유역에서는 초기후반에 가락동유형은 있으나 가락동식토기는 전기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혼암리식토기도 확실히 전기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삼동식토기(공렬, 공렬+구순각목)에 대해서는 초기후반부터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의 주거지에 서 1~2점씩 공반예가 확인되므로 초기의 비주류속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필자는 줄고에서 평거동 유적 등에서 출토된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의 연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여 돌대문단독기만을 초기로 편년하였는데, 둔산식 주거지에 돌대문토기와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는 것도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초기 후반에 하나의 양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⁷⁾

<표 9>는 김병섭에 의한 남강유역 조, 전기 토기문양의 편년표이다(김병섭 2012: 213). 돌대문토기와 상촌리식 이 중구연토기의 하한을 초기로 보고 있으며, 단선문계(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는 초기전반에 출현하여 전기중반경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단선문계 토기 중 거치문, 사격자문 형태는 유사이중구연(혼암리식, 가락동식) 출현 시점에 소멸, 유사이중구연(혼암리식, 가락동식이중구연토기)은 전기말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렬과 구순각목은 초기 후반에 출토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돌류문은 별개로 구분하여 초기 말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9>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조, 전기 토기문양의 편년(김병섭 2012: 213)

	초기	전기	하촌리기	후기
돌대문	■			
이중구연	■			
단선문계	■	■		
구순각목문		■	■	
공렬문		■	■	
돌류문		■	■	
유사이중구연		■	■	
대평리식이중		■	■	

7) 그렇다면 초기의 돌대문단독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될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청동기시대 초기전반에는 미사리식주거지에 돌대문토기만 출토되는 돌대문단독기를 인정하고 싶다.

밑의 <표 10>은 앞서 살펴본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 유형별 단계 설정 및 병행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남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토기 편년과 관련하여 공렬토기의 출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초기는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상존하는데, 초기전반에는 미사리유형만 확인되고, 초기 후반에 가락동유형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미사리유형에는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절상돌대문, 공렬문, 공렬+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다. 토기 출토량을 살펴보면, 돌대문토기와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압도적이며, 공렬토기는 돌대문토기와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와 1~2점씩 공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 남강유역에서는 주체적인 문양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사리유형에서 공렬토기는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와 평거4-1지구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가락동유형에서는 평거3-1지구 5호, 평거3-2지구 1호, 옥방4지구 34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옥방5지구 C-3호와 평거3-1지구 5호는 초기 후반에 편년되는데, 공렬토기는 단순 공렬토기와 공렬문 위에 사선문이 시문된 토기

<표 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 편년

	미사리식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초기전반	1단계		
초기후반	2단계	1단계 2단계	
전기전반	3단계	3단계:전기초 4단계	1단계
전기후반			2단계 3단계

조합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구멍간격에서 다른 토기와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공렬토기가 구멍간격이 0.5~1.0cm 인데 반해 이들 토기는 2.5~4.4cm 로 간격이 넓은 편으로 이를 古式 공렬토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처럼 미사리유형이나 가락동유형에서 1~2점씩 출토되는 공렬토기에 대해 후대 유입된 유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⁸⁾ 하남 미사리 유적 고려대 018호 주거지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후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강유역에서도 이러한 유물들이 돌대문토기와 함께 1~2점씩 확인되는데, 옥방5지구와 상촌리D 유적에서도 초기에 해당되는 공렬문토기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출토관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가 모두 후대 유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 미사리 유적에서는 다음 단계에 역삼동식 주거지와 공렬문토기 출토 주거지가 확인되어 그러할 여지가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남강유역 평거3-1지구에서는 3-1지구 5호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조,전기 주거지 및 중기의 송국리단계 주거지에서도 공렬문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3-1지구 5호 주거지 공렬문토기는 어떠한 이유 혹은 경로를 통해서 청동기시대 초기에 취락 내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단계로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최근 김병섭은 남강유역 초기~전기 편년에서 공렬문과 돌류문을 구분하고, 공렬문은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 존속기간 내 어느 시점에 출현하였고, 돌류문 등장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돌류문은 돌대문토기와 확실한 공반에는 없고 이중구연토기 신단계에 출현하여, 송국리문화형성기까지는 확실히 존속하며, 송국리문화 전반경에도 파편으로 확인되나 공반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계보에 대해서는 공렬문과 돌류문

8) 중서부지역 무문토기 연구에서도 돌대문과 (구순각목)공렬토기가 공반된 사례 모두를 후대 혼입의 결과로 단순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황재훈 2014: 57).



모두 이주민에 의한 전파인지 자생 혹은 변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김병섭 2012: 213).

물론 김병섭의 논의대로 돌류문은 돌대문토기와 공반에는 확실하지는 않다. 평거3-1지구 5호 주거지 출토 토기 3점이 돌대문인지 이중구연인지 제작기법이나 형태에서 여전히 애매한 상태이지만, 초기 후반에 편년되는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공렬문과 같이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출토된다고 볼 수 있다. 평거3-2지구 1호 주거지의 공렬토기도 뉴상파수와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어 초기후반에 편년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내→외로 반투공하려던 것이 관통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토기는 높이 50cm 이상의 대형토기로 1/2이상 잔존하는 것으로 볼 때에 확실한 공반양상으로 이해된다.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이 상존하면서, 역삼동-혼암리유형은 전기 후반으로 이어진다. 전기전반의 미사리유형에서는 평면 장방형의 주거지에 석상위석식노지, 초석열 등이 설치되며, 각목돌대문토기, 절상돌대, 뉴상파수,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 구순외단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된다. 이 시기에 미사리유형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가 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연부 외측모서리와 구연상단에 각목한 토기도 확인된다. 공렬토기는 평거4-1지구 5호 주거지에서 2점 출토되었는데, 구순각목이 시문되어 있다. 이 중 한점은 구연단 가까이에 폭이 좁고 얇게 이중구연이 형성되어 있는데, 혼암리식토기와는 구분된다. 이 시기의 가락동유형에서는 돌대문토기는 보이지 않고,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와 거치문토기가 소수 확인되며, 대부분 가락동식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데 구순각목과 단사선 등과 결합되어 있다. 공렬토기는 평거4-2지구 3호, 초전동 42호·43호, 평거4-2지구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되는데 모두 단순 공렬문토기이다. 이들 공렬토기의 속성에서 구멍 크기는 0.2~0.5cm, 구멍간격은 0.5~0.8cm, 구연단과의 간격은 0.6~1.0cm 정도로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며, 투공방향에서는 밖에서 안으로의 투공이 더 많은 편이다.

전기전반에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관산리식주거지를 기본으로 하여 미사리유형이나 가락동유형에 비해 주거지는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대평리 어은1지구에 몇 기가 분포⁹⁾하고 있어 추가되면 그 수량은 증가하겠으나, 이 시기 남강유역에는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토기는 공렬, 공렬+구순각목, 구순각목의 역삼동식토기가 다수이며,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의 혼암리식토기도 소수 출토된다.¹⁰⁾ 산청 사월리 11호 출토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이중구연 폭이 2cm 정도로 짧고 두툼한 것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이중구연으로 공반되는 혼암리식토기도 남강유역에서 이른 시기의 토기로 편년되고, 주로 초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제방추차의 존재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천 본촌리 나6호 주거지에서는 뉴상파수가 혼암리식, 역삼동식 토기와 공반되는데, 본촌리 나3호와 같이 頸肩間형 침선문 평저장경호(송영진 2016: 130-131)에 구순외단각목문이 시문된 것으로 볼 때, 나3호 주거지와 함께 전기전반에 편년하고 여기서 출토된 혼암리식토기를 전기전반의 이른 시기로 보고싶다. 이에 대해 김병섭은 본촌리 나6호 주거지를 전기전반(김병섭 2012: 223), 송영진은 전기후반에 편년하고 있는데(송영진 2016: 142), 후행하는 나8호 출토토기는 경견부가 뚜렷하지 않은 호형토기와 공반되지만, 나6호 출토토기는 나3호 토기와 같이 경견부가 뚜렷하게 보여 토기문양 공반양상은 다르지만 같이 전기전반에 편년한다. 한편, 평거4-2지구에서 무시실식 노지를 가진

9) 어은1지구 유구배치 상태를 보면, 장방형의 돌대문주거지 주변으로 세장방형의 주거지가 5기 정도 확인되며, 이 중 65호 주거지는 세장방형에 무시실식노지 4기가 설치되었으며, 내부에서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이상길·김미영 2004: 112).

10)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창규에 의해 혼암리유형에서도 복합형(혼암리식토기)의 비율이 적음을 논의한 바 있다(이창규 1988).

소형의 방형주거지들이 확인되는데, 12호 주거지에서 공렬문과 구순각목문, 10호는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 9호와 11호는 구순각목문이 출토되어 다소 늦은 시기에 해당될지도 모르나, 이와 같은 구조의 주거지인 13호 주거지에서 유흥구식 석검편이 출토되고, 절대연대가 3120±50BP로 다소 높게 나온 점이 있지만 늦어도 전기 전반의 늦은 시기에 편년하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가락동식토기와 혼암리식토기의 퇴화현상이 나타난다. 옥방4지구 8호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이 퇴화되어 단사선문만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며, 옥방4지구 1호 주거지에서도 공렬+단사선문토기의 이중구연이 퇴화하여 점토접합흔에 단사선이 시문된 형태이다. 한편 전기 후반에 편년되는 귀곡동 대촌유적과 초전동 44호에서도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가 출토되는데 구연단 부분이 결실되어 혼암리식토기인지 가락동식토기인지 알 수 없다. 전기 후반에도 주거지 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장방형, 장방형주거지에서는 이전 시기에 혼암리식토기의 출토가 특징적인데 반해 전기 후반에는 공렬, 공렬+구순각목으로 구성된 역삼동식토기가 다수 출토되며, 대평리식이중구연(천발)와 부리형석기 등이 공반된다. 이를 기점으로 공렬+구순각목, 공렬, 구순각목토기의 공반예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기 후반의 늦은 시기에는 공렬+구순각목, 공렬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구순각목토기는 1~2점씩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단계의 공렬토기에 대해서는 졸고(2004)에서 다룬 적이 있다. 공렬+구순각목, 공렬로 이루어진 역삼동식토기는 E군과 F군의 주거지에서 다수 출토되며, 이들 주거지는 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는 1그룹과 공렬문토기가 출토되는 2그룹으로 구분되고 그 시간적인 변화는 1그룹→2그룹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E군에서는 공렬문·구순각목문 심발형토기와 구순각목문 호형토기, 이중구연 마연토기,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일단경식석촉, 부리형석기, 솥돌, 방추차, 어망추 등이 출토되고, F군에서는 중소형의 심발형토기와 외반하는 호형토기에 구순각목문이 시문되고, 외반구연토기가 새롭게 등장한다. 외반구연토기와 공렬문토기가 공반하기도 하고, 구순각목문 심발형토기도 계속 나타나지만, 이중구연 마연토기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는 서서히 소멸해간다. 석기로는 일단경식석촉과 일단병식석검이 있으며, 반월형석도는 차츰 소멸하고, 삼각형석도와 유구석부가 새롭게 출현하여 주류를 이룬다. 합인석부, 편평편인석부, 부리형석기와 솥돌, 어망추, 방추차 등은 여전히 출토된다고 보았다.¹¹⁾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까지 남강유역에 존속하고 있었던 공렬(돌류)과 구순각목 속성은 중기 후반이 되면 남강유역의諸多 유적에서 잔존양상이 다르게 간취된다. 이전 논고(2004)에서 남강유역에서는 공렬문이 가장 늦은 시기까지 남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후 조사된 유적을 검토한 결과 가호동 유적이나 초전동 유적에서는 구순각목문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호동 유적의 경우, 전기초(?)의 장방형주거지에서도 중기 송국리단계 주거지에서 구순각목이 다수 출토된 데 반해, 단 1기(22호 수혈)의 수혈유구에서만 공렬+구순각목,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다. 초전동 유적에서도 전기 후반의 소형 방형주거지에서 대부분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고, 중기의 송국리단계 주거지에서도 일부 주거지(13, 14, 16, 38호 주거지)에서는 공렬과 공렬+구순각목, 구순각목토기가 공반되지만, 대개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구순각목문토기는 원형의 송국리식주거지(8호 주거지)에서도

11) E군은 중기전반, F군은 중기후반으로 편년된다(고민정 2004).



출토된다. 평거3-1지구에서도 조, 전기 주거지에서도 공렬토기 몇점이 출토되었을 뿐 중기의 제사유구(5호)에서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며, 그 외는 무문양이다. 반면 대평리 어은2지구, 옥방4지구, 옥방8지구, 산청 하촌리, 갈전리, 이곡리 유적 등에서는 중기 전반을 중심으로 공렬, 공렬+구순각목문이 다수 출토되고, 중기 후반에도 공렬토기가 일부 남아있다. 이처럼 남강유역에서 유적별로 공렬과 구순각목토기가 소멸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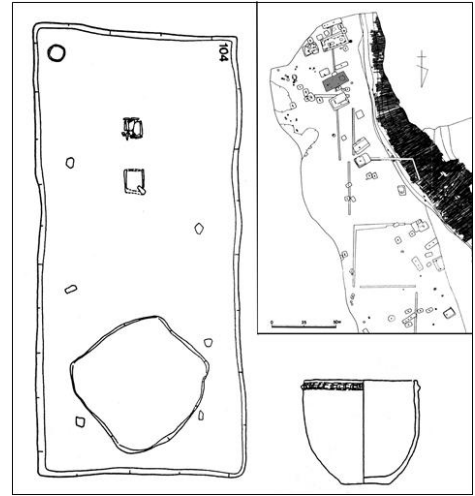
다음은 절대연대에 대한 몇가지 논점을 검토해 보자. 남강유역에서는 그동안 절대연대 측정 자료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근래에 조사된 평거동 유적에서 탄소연대자료가 추가됨으로써 청동기시대 조, 전기의 절대연대 및 공반유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자료도 다수 추가됨으로써 조, 전기와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청동기시대 편년 수립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층위를 이루는 유적이나 유구 중복사례, 토기문양의 선후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식학적 편년법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14C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황재훈은 넓은 확률범위를 갖는 보정연대보다는 측정연대(BP)의 중앙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14C연대의 채택과 조정절차를 거쳐 신뢰도를 평가하여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14C연대분포범위를 파악하였다(황재훈 2014). 김장석도 보정연대가 아닌 측정연대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김장석 2012)하는 등 절대연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표 11>은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초기~중기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일람표이다. 탄소연대 자료에 의하면 미사리유형 1단계에 해당하는 옥방 5지구 D-2호는 3230 ± 30 BP로 기존의 견해와 같이 상한은 3200 BP (BC 16~15)를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절대연대 자료가 불충분하여 어은 1지구의 2850 ± 60 BP와 2830 ± 60 BP에 비해 옥방 5지구 D-2호와 상촌리 D지구 B-2호와 B-10호의 연대가 너무 높게 나와 다소 신뢰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천선행 2005:79). 하지만 졸고(2009)에서 평거동 유적에서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 단계 주거지의 탄소연대가 산출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들 유적 간에 간극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고 논 의하면서, 어은 1지구 유적과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¹²⁾ 오히려 상촌리 D지구 B-2호·10호와 평거 3-1지구 유적 간에는 유물조합상으로 볼 때에 연대가 잘 연결되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형원은 측정기관에 따라 차이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절대연대를 활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이형원 2002: 40). 남강유역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평 옥방5지구와 상촌리 D지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어은1지구-평거4-1지구-평거4-2지구는 서울대학교 AMS센터, 평거3-1지구는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미국오리건대학, 평거3-2지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측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대평리 어은1지구(이상길·김미영 2004: 107)와 평거3-1지구의 시료 중 목탄이 아닌 탄화곡물 시료의 분석연대가 다소 낮게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거3-1지구 청동기시대 1층 발과 1층 논은 출토유물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하고 있는데, 탄소연대값

12) 어은 1지구 유적의 절대연대 자료가 개별주거지의 특정 자료이므로, 유적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은 비교적 높게 산출된 값이 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1층 발 시료 중 1점은 탄화밀을 분석(미국오리건대학)한 것으로 2585±20BP 연대가 산출되었는데 다소 늦은값은 있으나 목탄시료보다는 유구의 연대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예로 보면 탄화곡물로 분석한 연대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지도 모르며, 이는 전술했던 어은1지구 유적의 절대연대에 대해 논의하면, 어은1지구의 탄소연대 시료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탄화곡물(조)로 청동기시대 중기의 평거동 경작유구의 탄화곡물 연대에 비추어보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지도 모른다.¹³⁾ 그렇게 되면 목탄시료로 분석한 탄소연대를 모두 낮춰봐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목탄시료와 곡물시료 중 어느 연대가 더 맞는지는 곡물시료 연대 자료가 좀더 축적이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연대 자료가 제시된 어은1지구 104호 주거지는 아직 미보고로 출토유물의 공반관계는 알 수 없으나, 세장해진 장방형 주거지의 형태만으로 볼 때 전기전반에 편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연대도 전기 전반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곡물자료의 축적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¹⁴⁾



<도면 3> 어은1지구 104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이상길·김미영 2004: 112)

<표 11>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탄소연대 일람표

유적	유구	14C연대 (yrBP±1σ)	비고	유적	유구	14C연대 (yrBP±1σ)	비고
대평리옥방5	D-2호주	3230±30		진주 초전동	1호구	2610±40	
대평리옥방5	D-2호주	3180±60		진주 초전동	42호구	2530±40	
상촌리 D	2호주	3030±50		진주 초전동	45호구	2560±40	
상촌리 D	10호주	3010±50	공렬, 공+구	진주 초전동	46호구	2500±40	
평거 3-1지구	12호주	3015±30		진주 초전동	61호구	2470±40	
평거 3-1지구	11호주	3010±25		진주 초전동	4호수혈	2580±40	
평거 3-1지구	11호주	2980±25		진주 초전동	10호수혈	2480±40	
평거 3-1지구	11호주	2970±25		진주 초전동	35호수혈	2500±40	
평거 3-1지구	11호주	2995±25		진주 이곡리	25호수혈	2730±50	
평거 3-1지구	4호주	2950±25		진주 이곡리	27호수혈	2890±50	
평거 3-1지구	4호주	2930±25		진주 이곡리	31호수혈1	2740±40	

13) 안승모(2012)는 이러한 고목효과 문제에 대해 서 지적하면서 종자시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출토유물을 고려하지 않고 종자시료만을 신뢰하여 유적의 연대를 너무 낮춰보는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황재훈 2014: 59).

14) 본고에서는 남강유역의 절대연대에 대한 몇가지 논점만 제시하였고, 최근 새롭게 제시되는 연구방법들을 통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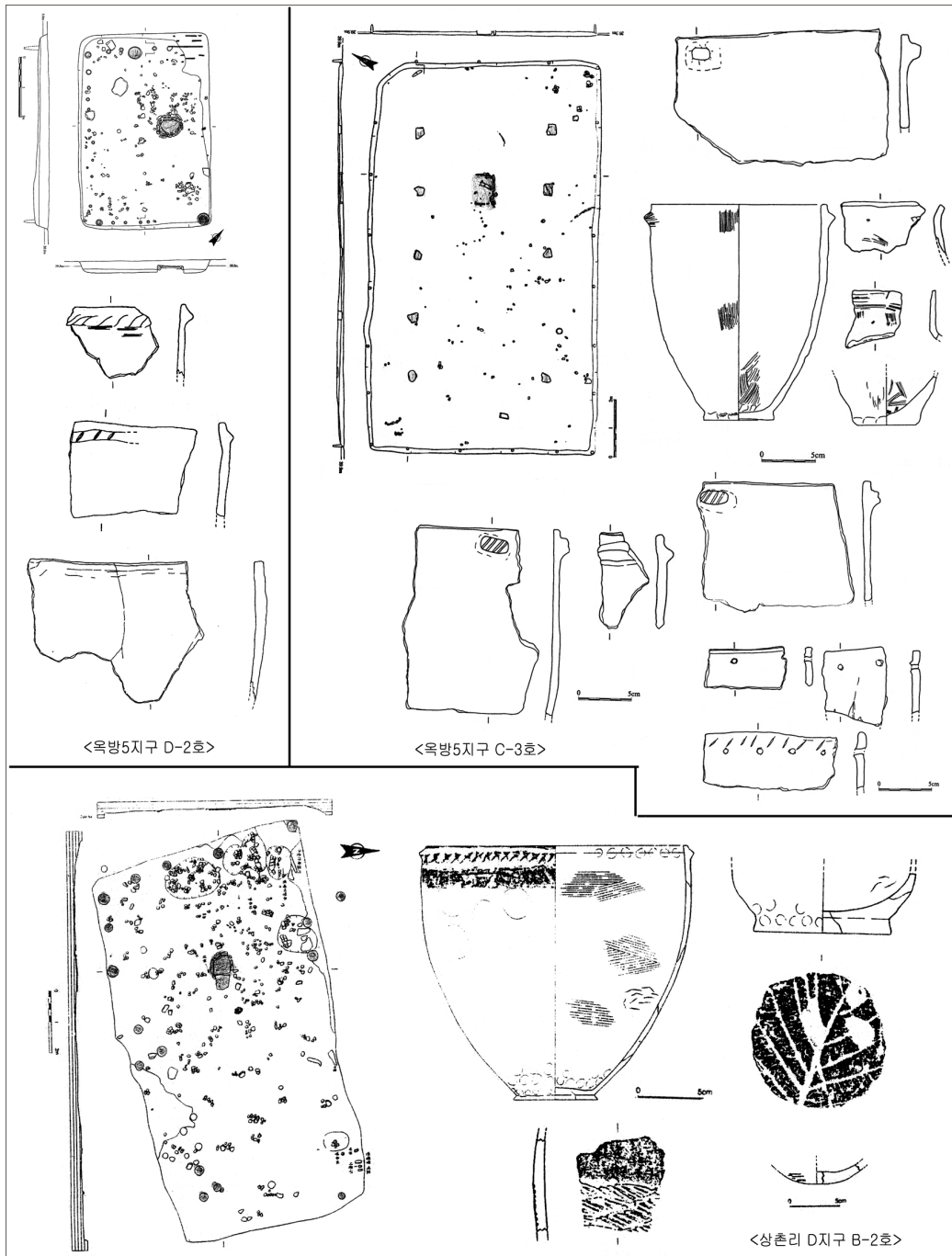


유적	유구	14C연대 (yrBP $\pm$ 1 σ)	비고	유적	유구	14C연대 (yrBP $\pm$ 1 σ)	비고
평거 3-1지구	5호주	2935 $\pm$ 25	공렬, 공+단	진주 이곡리	31호수혈2	2210 $\pm$ 60	
평거 3-1지구	5호주	2945 $\pm$ 25	공렬, 공+단	진주 이곡리	구4-B구간	2850 $\pm$ 50	
평거 3-2지구	2호주	2970 $\pm$ 40		산청 매촌리	7호주	2380 $\pm$ 50	
평거 4-1지구	1호주	2910 $\pm$ 50		산청 매촌리	11호주	2490 $\pm$ 50	
평거 4-1지구	5호주	2900 $\pm$ 50	공+구	진주 속사리	3호집석	2680 $\pm$ 40	
평거 4-2지구	7호주	3090 $\pm$ 50		진주 속사리	1호수혈	2670 $\pm$ 40	
평거 4-2지구	7호주	2950 $\pm$ 50		산청 하촌리	Ⅲ-2호주	2835 $\pm$ 25	공+구, 구
평거 4-2지구	13호주	3120 $\pm$ 50		산청 하촌리	Ⅲ-4호주	2825 $\pm$ 25	공, 구
대평리어은1	104호주	2850 $\pm$ 60	쌀	산청 하촌리	Ⅲ-7호주	2680 $\pm$ 25	
대평리어은1	104호주	2840 $\pm$ 60	조	산청 하촌리	Ⅲ-12호주	2700 $\pm$ 25	
대평리어은1	104호주	2830 $\pm$ 60	조	산청 하촌리	Ⅲ-15호주	2730 $\pm$ 20	
진주 초전동	3호주	2860 $\pm$ 40		진주 호탄동	나-1호주	2490 $\pm$ 50	
진주 초전동	29호수혈	2750 $\pm$ 40		평거 3-1지구	청동기1층발	2810 $\pm$ 30	탄화물
진주 초전동	6호주	2520 $\pm$ 40		평거 3-1지구	청동기1층발	2815 $\pm$ 15	목탄
진주 초전동	20호주	2520 $\pm$ 40		평거 3-1지구	청동기1층발	2585 $\pm$ 20	밀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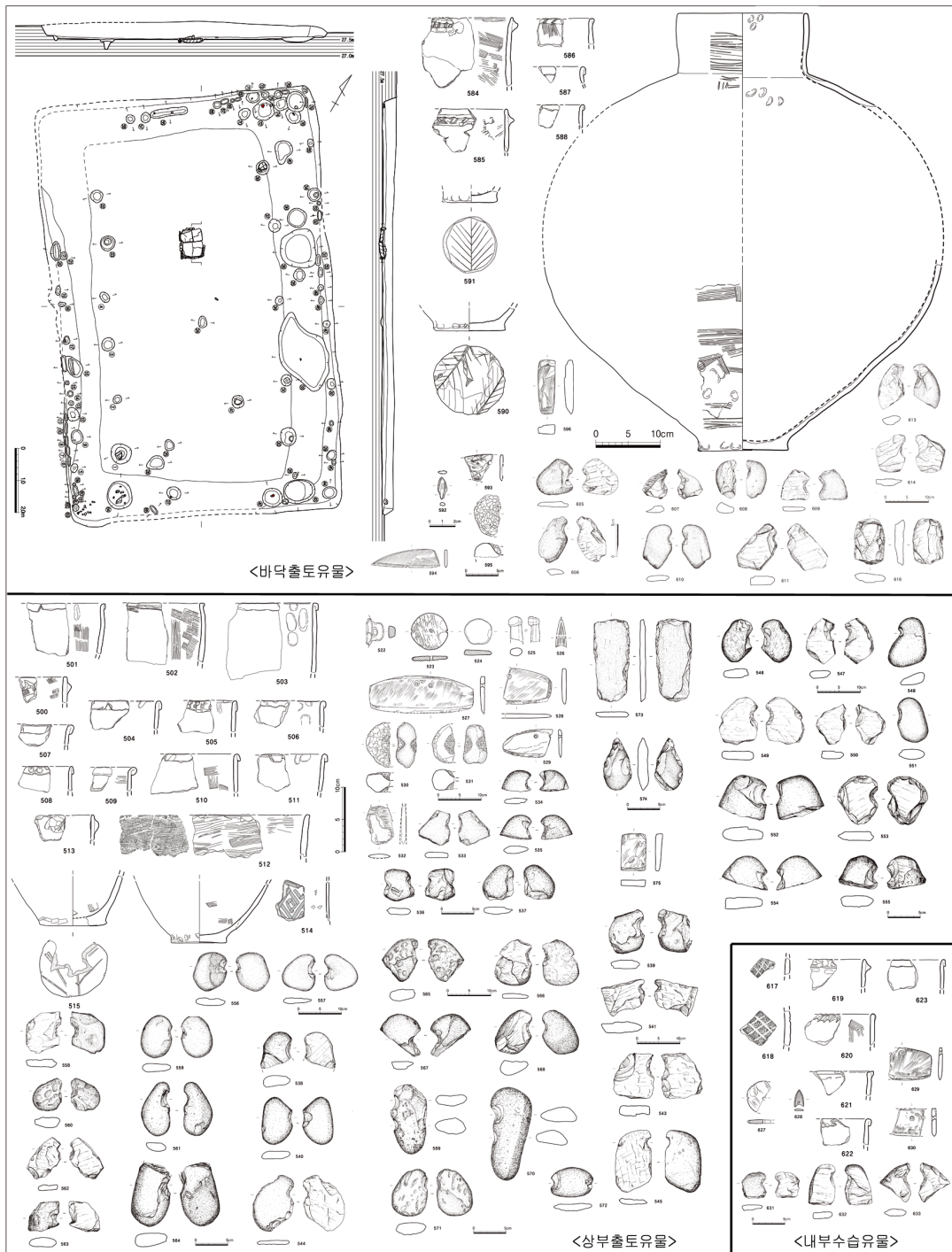
이상 청동기시대 조, 전기 토기문화를 검토하고, 남강유역의 공렬토기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기는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상존하며, 가락동유형은 조기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후반의 미사리식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에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가 공반되고, 가락동유형에서는 전형적인 가락동식토기는 보이지 않고, 평거동식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등이 공렬토기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기후반부터 각 유형에서 1~2점씩 공반예가 확인되는 공렬토기와 공렬+구순각목토기(역삼동식토기)는 비주류속성으로 이시기의 남강유역에서는 주체적인 문양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락동식토기와 혼암리식토기는 전기전반에 출현하고 전기전반~후반에 걸쳐 혼암리식토기보다는 역삼동식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면서 공렬문, 구순각목문이 단독문 형태로 중기 후반경까지 잔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줄고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최근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게 되었다.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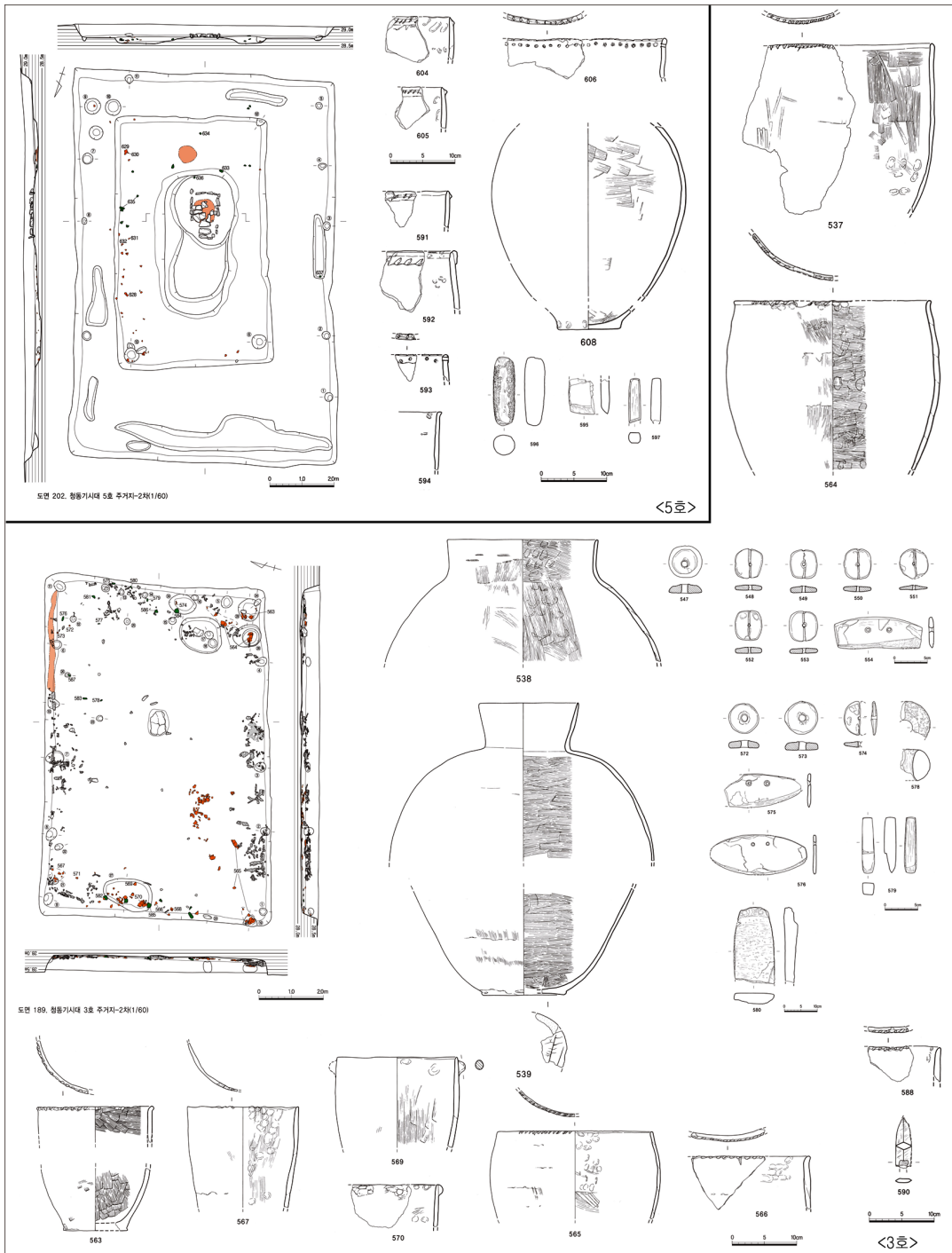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1단계(옥방5지구 D-2호), 2단계(옥방5지구 C-3호(상), 상촌리 D지구 B-2호(하)

<도면 4> 미사리유형 1,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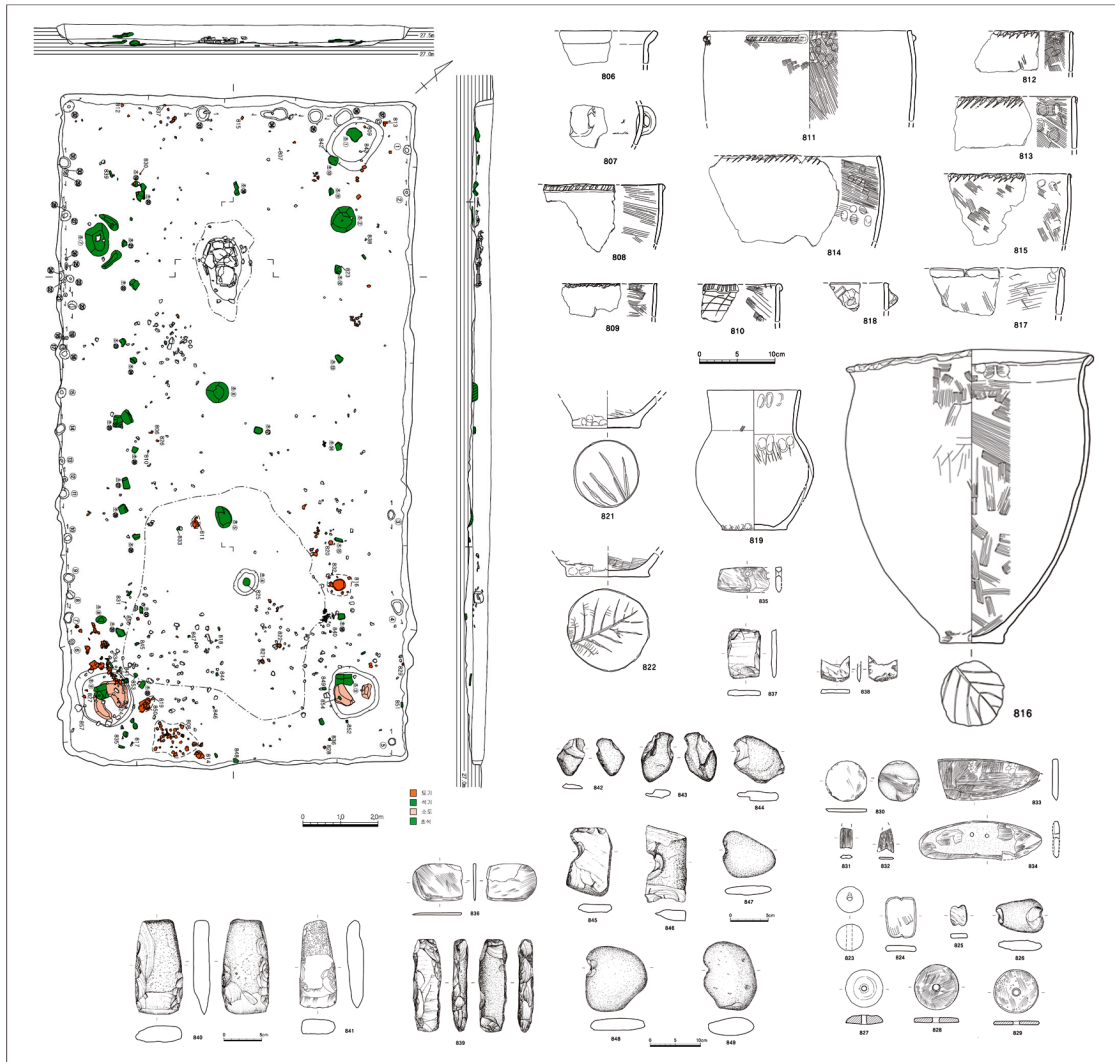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2단계(평거3-1지구 4호 주거지)

<도면 5> 미사리유형 2단계



도.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3단계(평거4-1지구 5호(상), 3호(하))

<도면 6> 미사리유형 3단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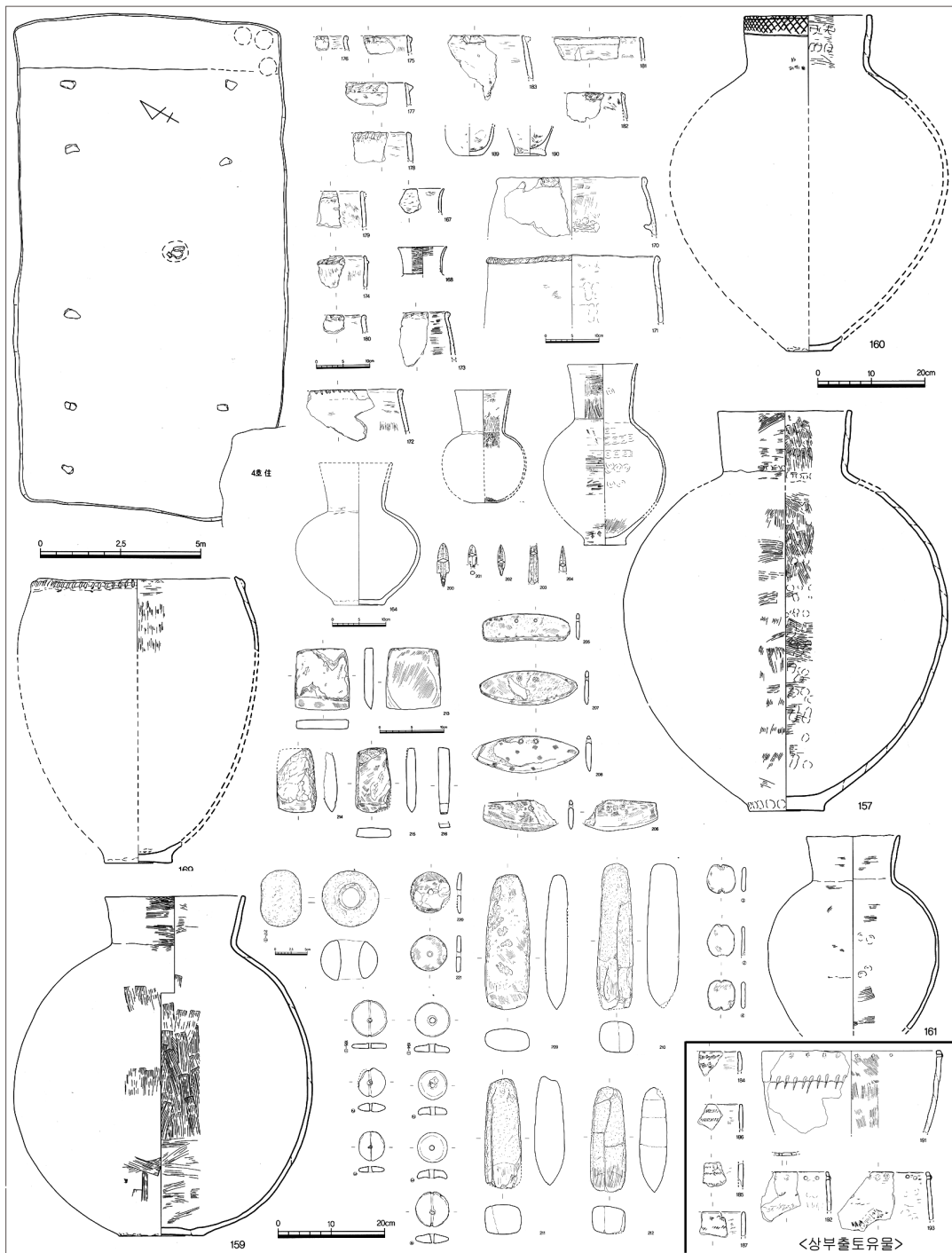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3단계-2(평거3-1지구 7호 주거지-주거지 바닥유물)

<도면> 미사리유형 3단계-2(바닥유물)



도.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3단계(평거3-1지구 7호 주거지-상부출토유물)

<도면 8> 미사리유형 3단계-2(상부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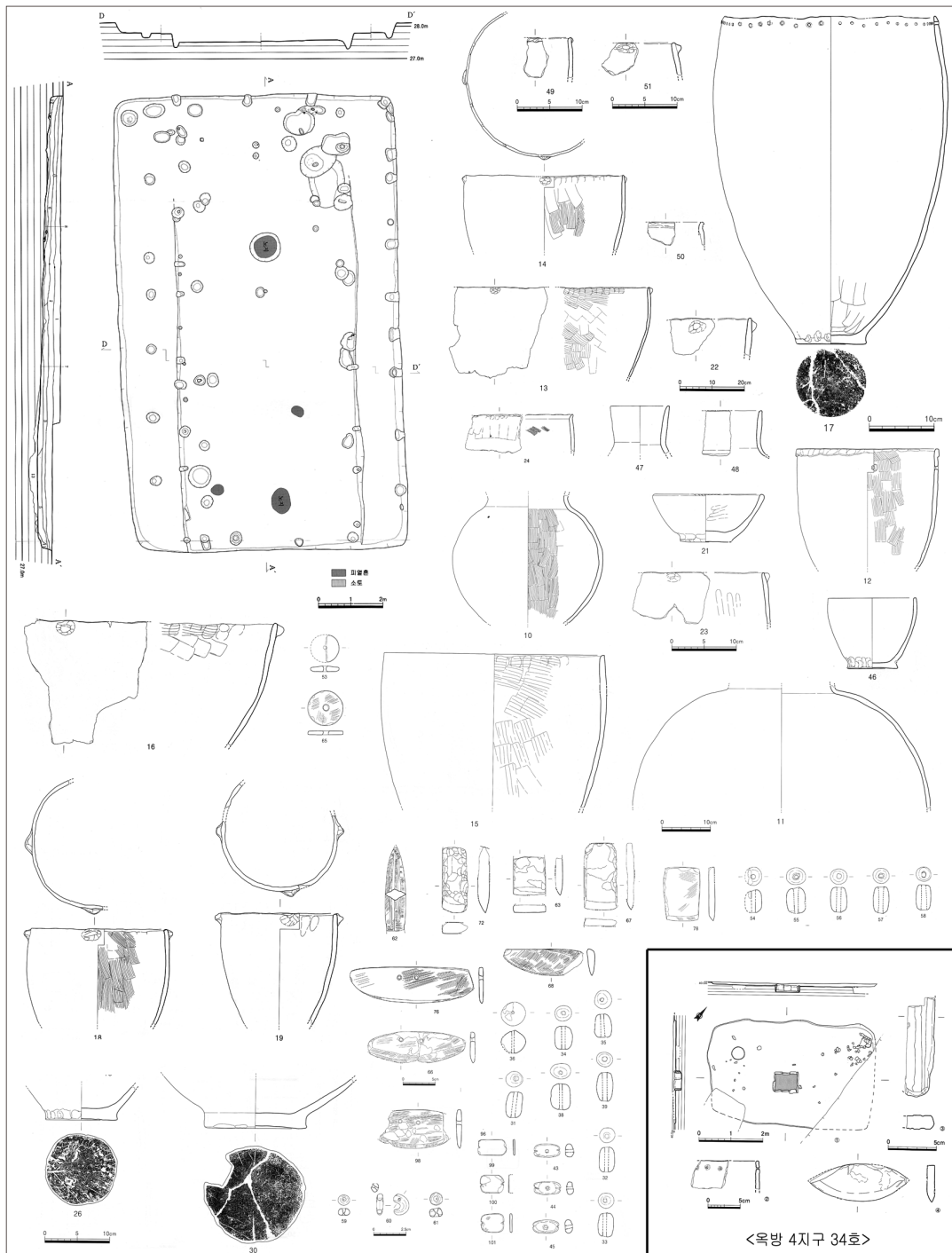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미사리유형 3단계-1(본촌리 나3호 주거지)

<도면 9> 미사리유형 3단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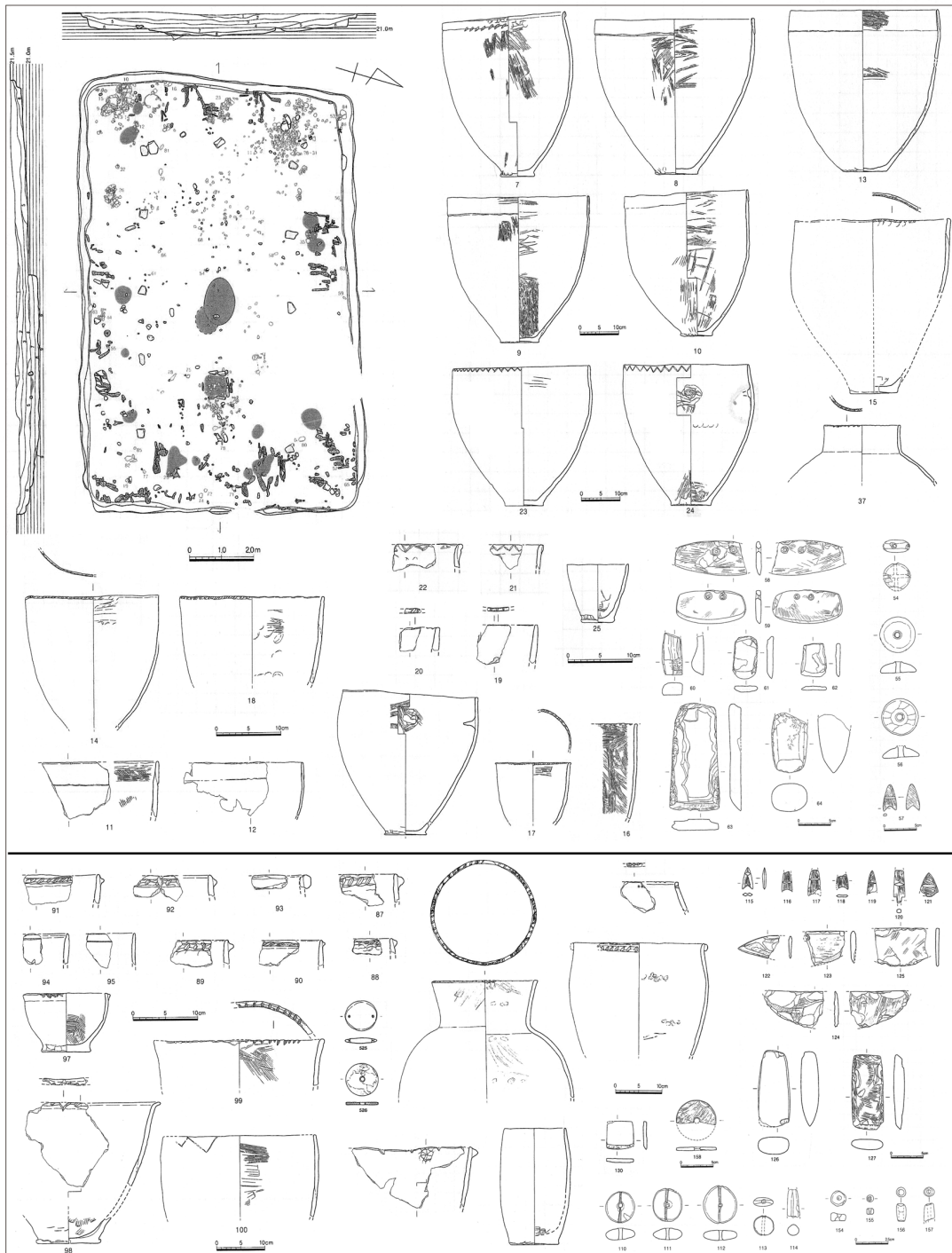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가락동유형 1단계(평거3-1지구 3호(상), 5호(하))

<도면 10> 가락동유형 1단계



도. 남강유역 가락동유형 2단계(평거3-2지구 1호주거지(상), 옥방4지구 34호 주거지(하))

<도면 11> 가락동유형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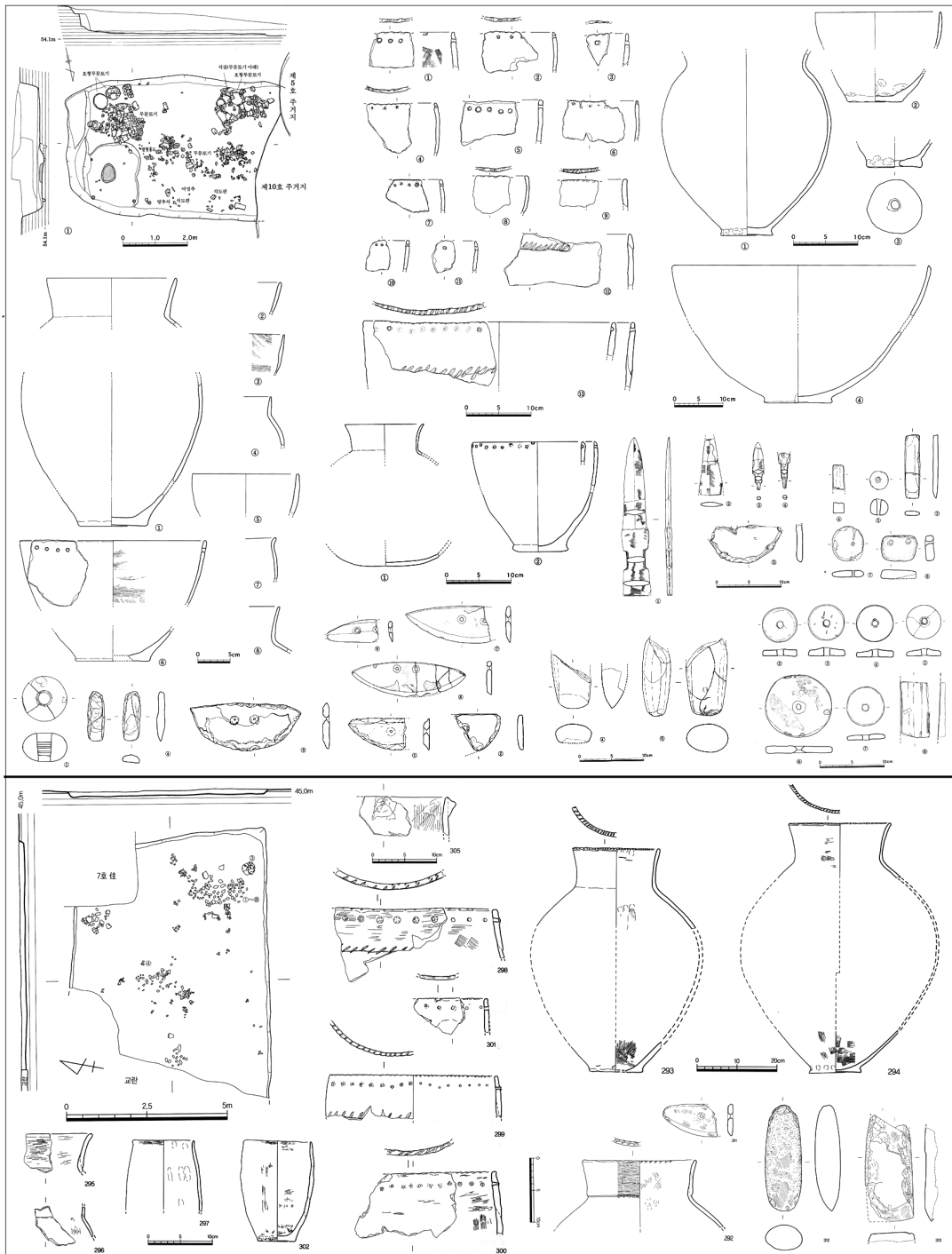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가락동유형 3단계(가호동 1호(상), 2호(하))

<도면 12> 가락동유형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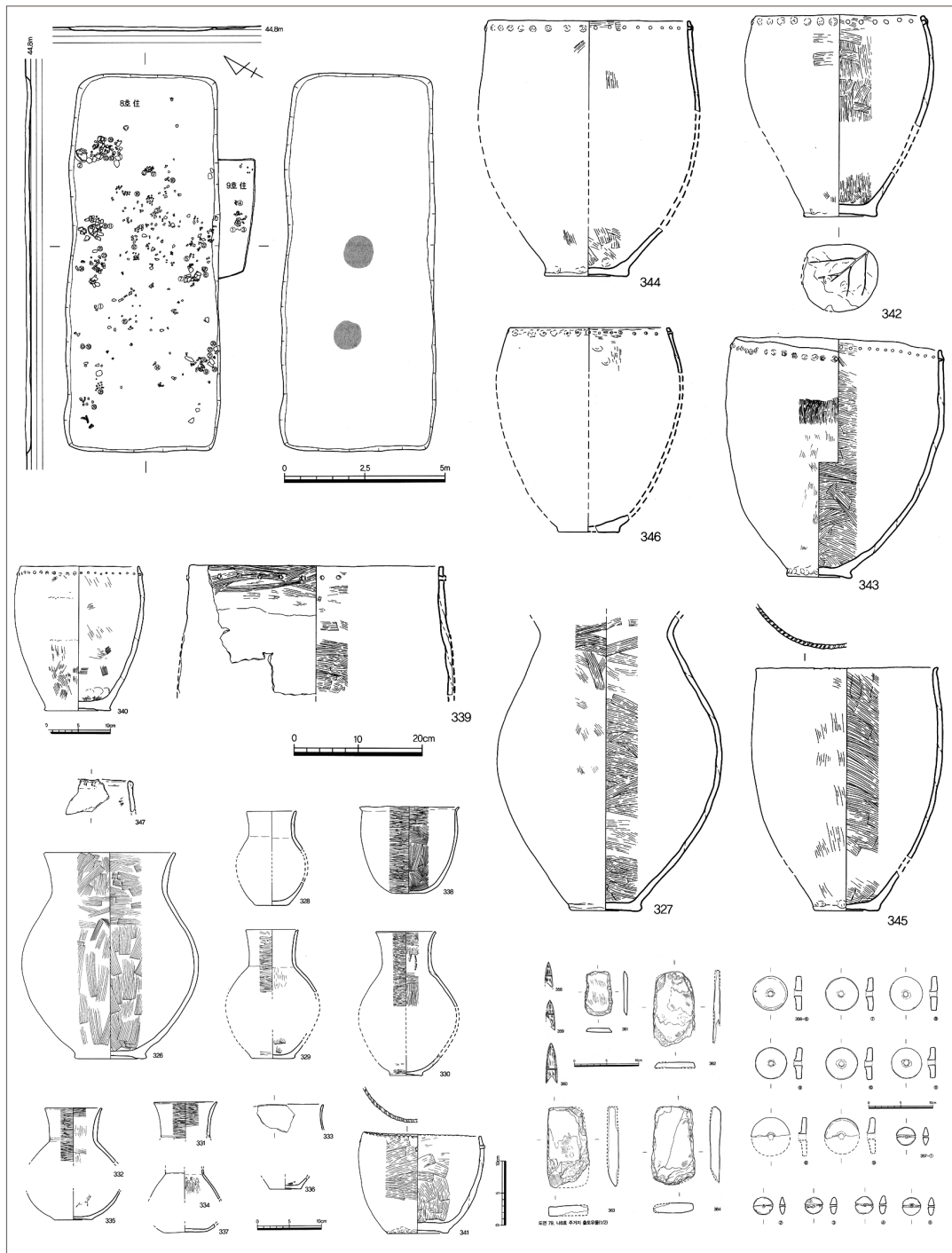
도. 남강유역 가락동유형 4단계(초전동유적 42호(상), 43호(하))

<도면 13> 가락동유형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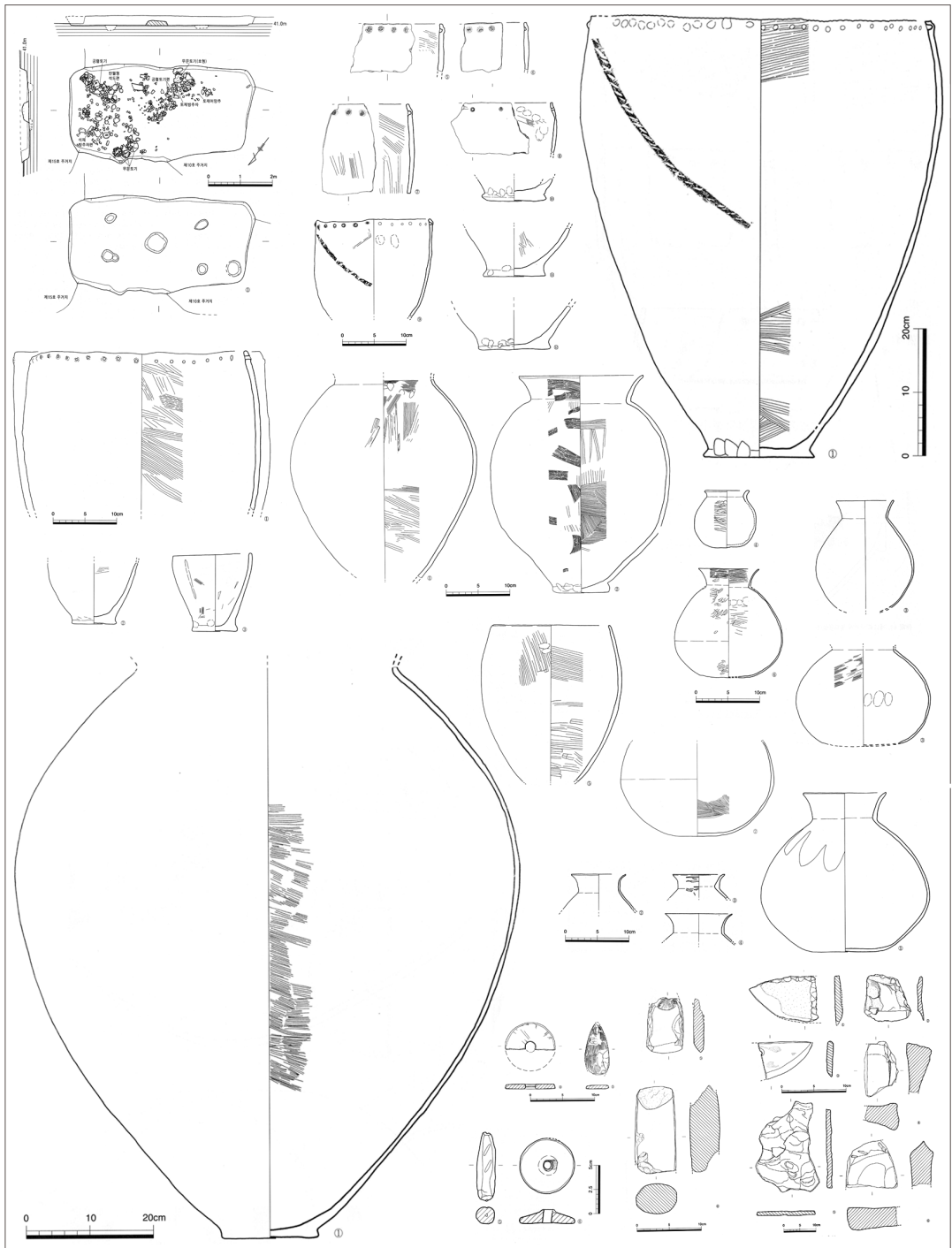
도. 역삼동, 혼암리유형 1단계(사월리 11호(상), 본촌리 나6호(하))

<도면 14> 역삼동, 혼암리유형 1단계



도. 역삼동, 혼암리 2단계(사천 본촌리 8호 주거지)

<도면 15> 역삼동, 혼암리유형 2단계



도. 역삼동, 혼암리유형 3단계(옥방4지구 11호 주거지)

<도면 16> 역삼동, 혼암리유형 3단계



| 참고문헌 |

- 강병학, 2012, 「서울·경기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강인옥, 2005, 「한반도 동북한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성과 편년-토기의 변천을 중심으로」, 『江原地域의 靑銅器文化』(2005년 추계 학술대회, 江原考古學會).
- ,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62, 한국고고학회.
- 고민정, 2004,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 , 2011,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지역성 연구」, 『東北亞歷史論叢』32, 동북역사재단.
- 공민규, 2012, 「충청 남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 2013, 『靑銅器時代 前期 錦江流域 聚落 研究』,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宮本一夫, 2004, 「北部九州と朝鮮半島南海岸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任記念-』.
- 김권중, 2012,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靑銅器學報』4, 한국청동기학회.
- , 2011, 「南江流域 下村里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南研究』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 2012, 「남강유역 초기~전기의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金壯錫, 2001, 「흔암리유형 재고: 기원과 연대」, 『영남고고학』28, 영남고고학회.
- , 2008, 「청동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69, 한국고고학회.
- , 2012, 「한강유역과 마한지역 장란형토기의 등장과 확산」, 『고고학』11.
- 金材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현식, 2008,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文化史的 意味」, 『考古廣場』2,釜山考古學研究會.
- 大貫靜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第二(槿域)』,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編, 깊은샘.
- 藤尾愼一郎, 2002, 「朝鮮半島の「突帶文土器」」, 『韓半島考古學論叢』, ずさわ書店.
-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호서지방의 선사문화』(제1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박영규, 2012, 「강원 영동지역의 초기~전기 편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초기~전기문화 편년』(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배덕환, 2009, 『嶺南 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裴眞晟,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32, 영남고고학회.
- , 2007, 『無文土器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 2013, 「가락동식토기의 초현과 계통」, 『고고광장』12.
- 송만영, 2013, 「혼암리식토기 발생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79, 한국상고사학회.
- 松本直子, 2000, 『認知考古學の理論と實踐的研究-繩文から弥生への社會・文化變化のプロセス』, 九州大學出版會.
- 宋永鎮, 201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庄田愼矢, 2007, 『남한 청동기시대의 생활활동과 사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승모, 2012, 「종자와 방사성탄소연대」, 『한국고고학보』83, 한국고고학회.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한국고고학회.
- , 2002,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 農耕文化의 形成』.
- ,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 2009,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文化의 起源과 傳播」,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울산문화재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논문집), 울산문화재연구원.
-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의 文樣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任記念-』.
- 李白圭, 1974,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土器編年을 중심으로-」, 『考古學』3.
- 이상길, 1999,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선사유적」,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 , 2002, 「우리는 왜 남강유역의 유적에 주목하는가?」,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 이상길·김미영, 2004, 「진주 대평 어은1지구 유적」,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제13회 정기학술발표회).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創刊號.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7, 「南韓地域 青銅器時代 前期의 上限과 下限」, 『韓國青銅器學報』1.
- , 2009, 『韓國 青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임상택, 2001,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지역적 전개-중서부지역과 강원영동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신석기연구』창간호, 한국신석기학회.
- 정대봉, 2015, 「青銅器時代 早期 二重口緣土器의 觀察-진주 평거3-1지구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89, 한국상고사학회.
- 정지선, 2012,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조·전기 취락구조」, 『지리산권역의 선사·고대 취락』(제1회 남악고고학연구회 학술대회).
- 趙由典, 1994, 「青銅器時代의 孔列土器」, 『東아시아의 青銅器文化-遺物을 通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 한국고고학회.



- , 2007, 「無文土器時代の 早期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創刊號.
- 최섫별,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하인수, 2006, 「末期 櫛文土器의 成立과 展開」, 『韓國新石器研究』12, 韓國新石器學會.
- 황재훈, 2014, 「중서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시간성 재고-14C연대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92.
- 황현진, 2004.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